

간금특집

홍콩 세계태권도 대회 운영, 심판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제6회
세계여자대회가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
가지 홍콩
콜리시엄
에서 성대
하세 치러
졌다.

중주국 한국을 비롯, 세계태권도연맹

(WTF)회원 140여개국 가운데 80여개국에서
1천여명의 남·녀 선수가 출전, 5일간의
열전을 벌
인 이 대회
는 예상대
로 남·녀

모두 한국이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홍콩 콜리시엄 · 11/19~23

선수권대회 큰 성공

공정성 등 높은 평가

화려하고 짜임새 있는 개최식에는
성공 등 양기무술 영화 스타들이
참석했으며 거의 매경기마다
유명가수의 공연이 곁들여졌다.

곽영완기자 현지서 밀착취재



곽영완기자(서울신문 체육부)가 월간태권도의 제13회(여자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특집을 위해 수고해 주었다.

곽영완기자가 취재한 대회총평, 경기분석, 세계 각국의 태권도육성

책과 유망주, 히메베스 쿠바 태권도협회장 단독회견,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이 특집에 담는다.

김운용 WTF 총재 4년 더 사령탑에

이 대회는 세계 스포츠종목을 통틀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세계 규모의 대회이자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평가돼 경기 외적으로도 관심을 끌었으며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외교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홍콩 체육계에 영향력을 행사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우 샤오 즈 체육장관을 선수단과 함께 파

견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중국내 태권도 보급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이기도 한 우 샤오 즈 장관은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겸 대한체육회장과 단독으로 만나 양국간 체육교류 활성화 방안도 깊게 논의했다.

또 세계대회로는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지난 95년 마닐라대회에 이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중국은 실질적인 개최국으로서 선수단과 함께 우 사오 즈 체육부장관을 함께 보내는 성의를 보였다.

여 두 번째 열리는 대회였지만 향후 각국별 전력을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여겨져 각국 NOC 차원에서 올림픽 메달 획득 전망 타진은 물론 99년 열릴 올림픽 선발전을 앞둔 전력탐색 등 정보전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 점에서 한국은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낀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각국의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력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이 실제로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세계 태권도 무대에서 한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독주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했다.

남자부에서는 한국이 금메달 4, 동메달 2개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뒤를 스페인(금 2, 동 1)과 대만(금 1, 은 1, 동 2), 이집트(금 1) 등이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집계하는 점수에 의한 순위(계체통과 1점, 1승에 1점, 동메달 1점, 은메달 3점, 금메달 7점)에서는 한국이 78점으로 종합 1위였으며 스페인이 43점으로 2위, 대만이 스페인과 같은 점수에 금메달에서 뒤져 3위, 이란이 37점으로 4위, 이집트가 35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한국이 금메달 7개를 휩쓸고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 선수·단장에 축전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이 홍콩에서 열렸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단의 입상 선수 개개인과 단장에게 축전을 보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은메달 1개를 보태 종합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대만(금 1, 은 1, 동 3)이 뒤를 이었고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이 은메달 1개로 나란히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점수제로 따지면 한국이 104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1위에 올랐고 대만이 47점으로 2위를 유지한 반면 멕시코와 미국이 29점으로 공동 3위로 올라섰으며 스페인이 28점으로 5위로 나갔다.

대회 운영면에서는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호평을 들었다.

태권도뿐 아니라 여타 종목에서도 홍콩이 세계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회 전에는 우려가 표명되었지만 막상 대회가 개막되자 이같은 걱정은 대부분 사라졌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기장으로 사용된 홍콩 콜리시엄의 모습. 1만여석의 관중석을 갖춘 최신식 시설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우선 체육관 시설에서부터 각국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대회가 열린 홍콩 폴리시업은 1만여석 정도의 관중석을 갖춘 최신식 시설로 역대 최고의 시설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조직위는 대관료로만 3만 홍콩달러(1 홍콩달러는 약 140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간의 대회기간보다 이들이 많은 7일간이나 대역해 일찌감치 시설 등을 준비하는 성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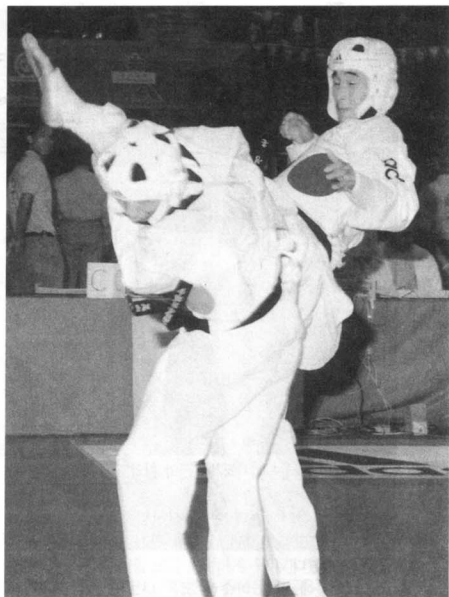
특히 조직위는 시설, 의전, 의전, 심판 등 각 분야에 걸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학생이나 태권도 사범을 위주로 한 자원봉사자들을 곳곳에 배치, 대회 참가자들의 고충을 즉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같은 세심한 점은 개막식에서부터 나타났다. 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긴 했지만 성룡 등 인기 액션 영화배우를 초청, 무도인 태권도와 연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또 거의 매경기일 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경기 사이에 넣어 관심을

레소토, 고난의 원정길 강도만나 짐 등 모두 땀겨

아프리카의 소국인 레소토선수단의 험난했던 대회 참가 과정이 대회 초반 화제를 이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근에 위치한 레소토는 8명의 선수단을 구성, 대회에 참가했는데 홍콩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레소토선수단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남아공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출발했는데 남아공 국경에서 그만 기관총을 든 강도들을 만나 짐은 물론 비행기표까지 몽땅 빼앗겼다는 것. 할 수 없이 오던 길을 되돌아간 이들은 가까스로 비행기표만 다시 만들어 가지고 홍콩에 도착했는데 선수단의 체제비는 물론 숙식을 해결할 방법조차 없는 막막한 형편에 처했다고.

결국 WTF가 이들에게 체제비 전액을 제공하는 등 「고난의 원정길」을 보상해줬는데 문제는 이로 끝나지 않았다. 몽고선수단도 머나먼 길을 몇일 동안 기차를 타고 오는 등의 초라한 행색이 드러나 도움이 필요했고 이밖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쿠바, 카자흐스탄, 중국,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니팔 등이 체제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13-16으로 패배, 3위에 머문 남자 웰터급 김경훈(오른쪽).

끄는데 성공했다.

조직위는 또 대회 관계자들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편의 제공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회 때마다 골칫거리로 떠올랐던 컴퓨터 점수 집계도 우수한 프로그래머들이 고용돼 큰 문제없이 처리됐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도 적지않았다.

우선 경기 진행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 참가국이 많았던 탓에 불가피한 점은 있었지만 중국인 특유의 느긋함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회 때마다 시비를 부르던 심판 판정 문제도 비교적 공정했다는 게 중평이다.

관중에 불만을 품은 소청건이 단 1개 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

WTF 본부도 심판배정과 선정에 가장 신경을 썼다. 이번 대회에는 50여개국에서 70여명의 역대 가장 많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국제심판의 활약도 주목을 끌었다.

은 심판이 참가했는데 우선 신진위주의 선발을 원칙으로 지난 95년 필리핀 대회에 참가했던 심판진은 가급적 배제했다.

이러한 탓에 일부 미숙한 점은 나타났으나 공정성은 확보됐다는 자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이처럼 판정에 따른 잡음이 사라진 점에 대해 WTF 본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회 개막전 심판교육 과정에서부터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조 조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주지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심판 선발에서 우선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대회 본부속 소였던 미라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김운용 총재를 만장일치로 제7대 WTF 총재에 연임시켜 2001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한 지속적인 성원과 준비를 다짐하는 등 세계 태권도인들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총재는 86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W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7대 총재에 추대

“조직강화와 홍보에 힘쓰겠다”

김운용 WTF 총재 당선 소감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으로 세계적으로 태권도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처하자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7대 총재에 연임된 김운용총재는 재추대된 데 대한 기쁨보다는 앞으로 펼칠 계획과 구상에 더 큰 비중을 뒀다.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원하겠다는 회원국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만장일치로 재추대된 소감을 밝힌 김총재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고 말했다.

김총재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계기로 태권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이 정비돼야 하며 세계연맹은 물론 산하 각대륙의 연맹 조직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만큼 경기 방식도 개선하고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됨으로써 앞으로 4년간 더 WTF를 이끌게 됐다.

또 헨슨(미국), 마르코 사일라(스페인), 기랑두(코트디부아드), 엄운규, 이중우(이상 한국) 등 5명을 김총재의 재청에 따라 만장일치로 부총재에 선임했으며 노부요시 타카하시(일본)를 재무이사

에 연임시켰다.

또 2명의 감사에는 달리보프 쿠파우(크로아티아)와 이태운(한국)을 각각 선임했다.

이 밖에 15명의 집행위원은 5명의 전행위원회를 구성, 빠른 시일내에 선임해 김총재의 재가를 받기로 했다. 집행위원을 전행위원회를 통해 선임키로 한 점은 WTF의 행정이 그만큼 투명해지고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총회에는 또 타히티 등 17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WTF 회원국은 모두 153개국으로 늘어났다.

한편 캐나다와 크로아티아가 경합을 벌인 99년 제14회 세계태권도대회 개최권은 전체 86표 가운데 41표를 얻은 캐나다에게 돌아갔다.

크로아티아는 40표로 아깝게 개최권을 따내지 못했고, 기권표는 5표였다.

내년에 열릴 제2회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는 투표에서 1표가 기권한 가운데 69표를 얻은 터키가 9표에 그친 멕시코를 따돌리고 개최권을 확보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보다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미국에서 뽑힌 96년도 미스 동양을 초청했다. 왼쪽은 김운용 WTF 총재, 오른쪽은 엄운규 부총재



▲김운용 WTF 총재는 86개 회원국이 참가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4대 총재로 연임됐다.

밝혔다.

홍콩대회의 의미에 대해서 김총재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모든 스포츠종목을 망라해 홍콩에서 열리는 첫 세계대회였던만큼 홍콩 당국은 물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회 준비를 잘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지난 95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세계대회였지만 사실상 태권도의 세계화를 가름하는 무대였다"고 자평하고 "3년 남은 올림픽을 앞두고 각 IOC회원국에서 태권도가 관심과 성원을 받도록 유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여자태권도는 8명 정원이 결승에 진출. 플라이급의 윤승희(왼쪽에서 3번째)만이
은메달을 땀을 뺀 나머지 7명 모두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여자 8체급, 모두 새로운 가능성보이며

이번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제6회 여자세계대회는 한마디로 세계 태권도의 수준이 평준화 돼 있음을 확인한 무대였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남녀 각 8개 체급 가운데 남자 급 4, 여자 급 7개를 휩쓸어 여전히 중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내실을 살펴보면 앞으로 절대 우위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했다. 다른 나라의 추격이 그 만큼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여차하면 추월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끼게 됐다는 표현이 옳다고 여겨

경기분석

진다.

오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각국의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력차가 좁아질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됐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한국선수단 관계자들은 실력 평준화라는 말이 적격이라고 표현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나타난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태권도 중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개의 금메달 가운데 4개와 동메달 2개를 포



결승진출 금 7개

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둬 종주국의 체면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던 남자의 경우는 위기감이 뚜렷했다.

당초 남자는 전체급 석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세계대회 경험이 풍부한 헤비급의 김제경, 미들급의 이동완, 웰터급의 김경훈, 라이트급의 심기선, 플라이급의 진승태는 승리가 예상됐으며 밴텀급의 김현용도 정상급의 실력임을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금메달 4, 동메달 2개라는 예상외의 초라한 성적을 얻는데 그쳤다.

안정전으로 예상되던 선수 가운데는 헤비급의 김제경, 미들급의 이동완, 플라이급의 진승태만 금메달을 따는데 그쳤고 라이트급의 심기선, 웰터급의 김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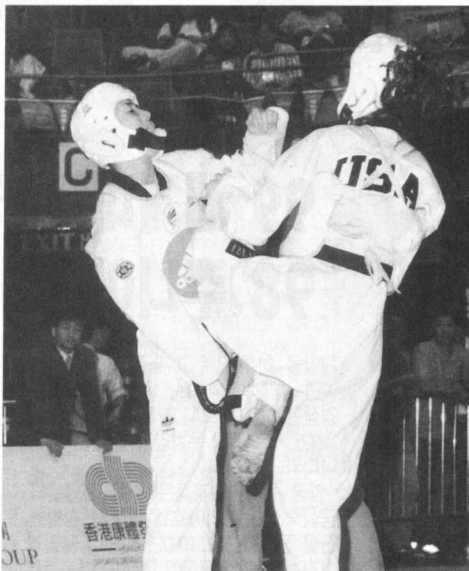
은 가까스로 동메달을 건지는데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국제대회 경험이 전혀 없어 큰 기대를 갖지 않던 페더급의 김인동이 금메달을 건져 올려 반타작은 했지만 밴텀급의 김현용의 16강 탈락과 핀급 김병태의 8강 탈락은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다.

반면 고전이 예상되던 여자는 오히려 은메달 1개를 포함, 7개의 금메달을 독식, 남자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며 이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자는 사실 최근 전력이 급상승한 대만과 종합우승을 놓고 다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을 정도로 우승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전했었다.

헤비급의 정만숙 정도만 확실한 금메달감으로 지목받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선수는 입상권에는 들지 못해 금메달에 대한 확신보다는 경기 당일의 컨디션과 상태에 따라 메달 색깔이 좌우될 것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결과는 플라이급에서 은메달을 딴 윤송희를



▲여자 페더급의 정재은(왼쪽)이 미국선수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승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웰터급의 김경훈(오른쪽)은 안타깝게도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제외하곤 모두 금메달을 싸쓸이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한국선수단 관계자들은 대진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태능선수촌에서의 합숙훈련기간 동안 남녀가 서로를 상대로 훈련을 한 것이 여자선수들의 실력향상을 가져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자의 경우 대만, 쿠바, 이란, 이집트, 멕시코, 스페인 등은 눈에 띄는 정도로 향상돼 있었다.

여자 역시 대만이 비록 유럽세에 밀려 의외의 저조한 성적을 올렸지만 여전히 백지장 한장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대등한 실력을 입증했고 중(重)량급의 러시아, 중(中)·경량급의 멕시코, 프랑스 등도 한층 향상된 기량을 보여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이들 국가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을 능가했다. 한국은 득점력에서만 한수 위였을 뿐

'99 세계대회, 경쟁 끝에 캐나다로 '98 주니어대회 터키서 열게 되고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총회에서 벌어진 99년 세계대회와 98년 주니어대회 유치투표 경쟁은 어느때 보다 불을 뿜었다.

99년 세계대회 유치경쟁에 나선 나라는 캐나다와 크로아티아.

안국 유치관계자들은 총회 전날부터 대회 공식숙소인 미라마호텔 등에서 활발한 로비전을 전개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종목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경쟁도 더욱 치열했다

는 평.

특히 알버타주 애드먼턴시 차원에서 유치에 나선 캐나다는 각국 선수단 참가인원 1인당 48달러를 보조하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경기장으로 활용할 알버타주립대 체육관의 시설을 세세히 설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

캐나다 유치단의 한 관계자는 "유치자금으로 주정부와 시에서 3만여달러를 댔고 한

고난도 기술 등에서는 뒤진감마저 나타났다.

시소게임으로 끝날 경우 한국의 우세승 선언에 자주 야유가 터졌다는 점이 이를 증명했다. 한국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잔 기술에 의한 확실한 득점에 의존한 반면 외국선수들은 오히려 화려하고 큰 동작을 구사했다.

큰 기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 점수를 얻는데는 실패했지만 관중의 입장에서 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일부 외국선수들은 득점기술에서도 기량이 늘어난 모습들이었다. 예전같으면 좋아하는 한가지 기술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구사했다. 더구나 매번 선수 구성이 바뀌는 한국에 비해 선수층이 얇은 관계는 있지만 수년 동안 꾸준히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외국선수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련미에 세기마저 점점 가다듬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특히 밴텀·페더급 등 경량급에서 일부 국가는 테크닉이나 경기 운영능력에서 한국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여자대표선수 가운데 유일한 여고생인 페더급의 정재은도 금메달리스트 대열에 끼어들어 주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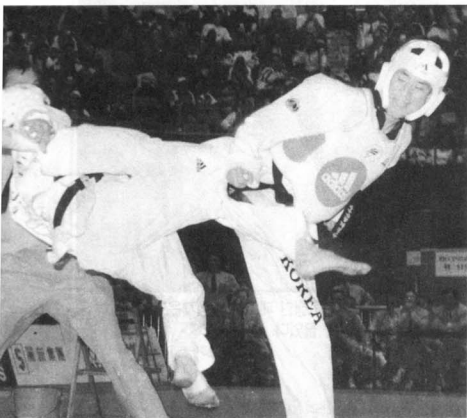
국적인 로비를 위해 애드먼턴 시장으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부분 식사대접에 사용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결국 캐나다는 전체 86표 가운데 41표를 얻어 40표를 따낸 크로아티아를 제치고 간발의 차로 개최권을 확보했는데 만일 적극적인 로비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었다.

이는 크로아티아를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김윤용총재의 발언 탓이었는데, 김총재는 개최 후보지의 공약제시 이후 투표직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크로아티아의 공약에 대해 '퍼펙트'라며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에 대해 WTF본부의 한 관계자는 "김총재는 97년대회 개최지를 결정했던 95년 회의 당시에도 크로아티아가 후보로 도전했다가 탈락한데 대해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고 총평하며 "김총재의 한마디에 15명 집행위원들의 표는 모두 크로아티아로 쏠리지 않았겠느냐"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 투표에서는 1표가 기권으로 처리된 가운데 69표를 얻은 터어키가 9표에 그친 멕시코를 따돌리고 개최권을 확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계대회가 미주(美洲)로 간만큼 주니어대회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것이 균형을 위해 좋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남자 8체급 가운데 금4개 짙은 위기감, 대책세워야



▲좋은 기량에도 불구하고 8강 탈락의 설움을 겪은 남자 핀급 김병태(오른쪽).

수준이 향상됐다. 여자는 헤비·미들급 등 중량급에서 실력차를 좁혔다. 이는 신장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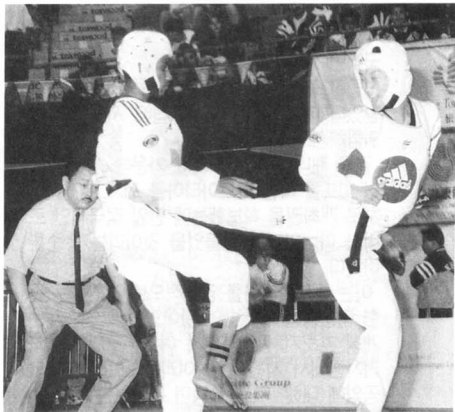
이와 관련, 코칭스태프의 전임제를 도입해 불만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개진됐다.

지금처럼 매년 코칭스태프가 바뀌는 제도하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선수층이 넓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년 선수가 바뀌기 때문에 외국서는 전력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다. 반대로 외국선수들은 오랜 기간동안 대표팀으로 출전해 기량이 노출돼 있는 상대라해도 한국으로서는 매년 코칭스태프가 바뀌는 탓에 그들 개개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맹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열리는 오픈대회에 자주 참가해 그들의 전력을 탐색하고 우리도 오픈대회를 개최, 자주 겨뤄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태권도협회 차원에서도 태권도 만큼은 항상 한국이 우세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 외국의 실력과 전력을 벗어나 외국의 실력과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보분석팀을 상시 운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드니올림픽 참가는 나라당 최대 4체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급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즉, 금메달이 가능한 중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체급별로 보면 각국마다 다 복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힘있고 빠른 뒷차기를 날려 성공시키고 있다. 최근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거의 한국선수와 대등해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다.



슈퍼스타 성룡 참관 사자춤 같이 추기도

홍콩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는 개막일부터 인기 스타들을 활용, 관심끌기에 성공했다. 조직위는 개막식에 맞춰 최고의 영화 스타인 성룡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매 경기일 마다 유명 가수들을 초청, 경기 관람에 지친 관중들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발휘.

특히 개회식에 모습을 드러낸 성룡은 최고의 인기스타임을 실감케 했다. 비록 태권도

◀경기 첫날 경기장에 모습을 나타내 사자춤에 참여한 무술 영화 스타 성룡은 「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와 분야는 다르지만 무술 연기자이자 무도인의 한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를 초청한 조직위로서의 대회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는데는 성공한 셈.

그가 경기장인 홍콩 콜리시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일 경기 첫날 결승전 직전 개회식 행사 도중이다. 조직위가 마련한 홍콩 전통무인 사자춤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하오 8시쯤 상하의 흰색 정장에 흰색 스포츠카를 직접 몰고 나타나 곧바로 안내를 받으며 관중들과 선수들의 환호속에 경기장에 입장한 그는 즉석에서 사자춤을 같이 추는 등 스타로서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 그의 등장으로 장내가 혼란해지자 대회 관계자들과 장내 경찰은 원으로 빙 둘러

싸는 등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후 VIP석에서 별다른 말 없이 머물던 그는 20여분만에 총총히 사라졌다. 대회 관계자들은 "한국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그가 비록 다른 무술이기는 하지만 태권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지니고 있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이 경기력 강화에 혈안

호 주 200만달러
멕시코 700만달러

2000년까지
집중투자

대 만

스페인

금메달에 1억5천만원

태권도학과 100대 1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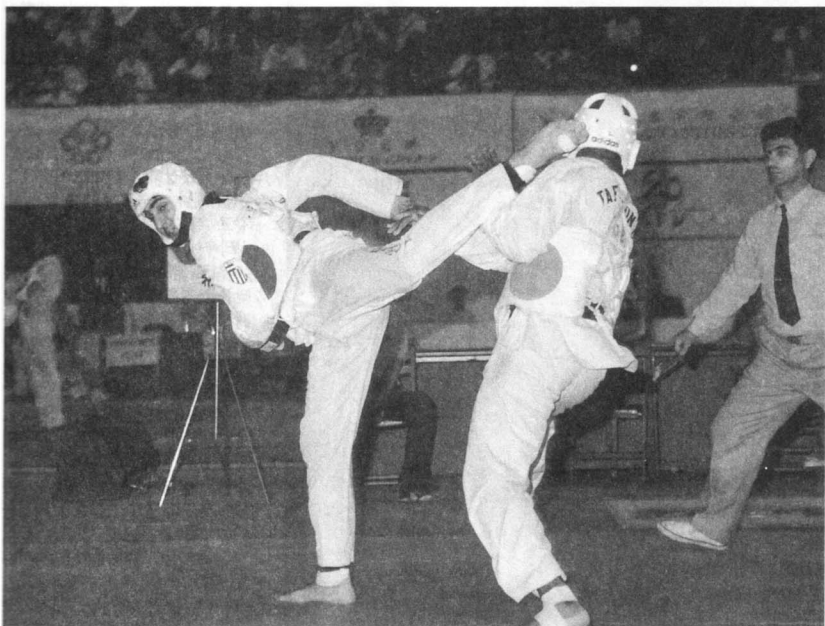
중국

이번 대회는 2000년 올림픽을 향한 각국의 움직임이 그동안 얼마나 활발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왔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 무대였다.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두번째 세계대회지만 지난 95년과는 다른 양상이 뚜렷했다.

각국의 목표와 지원책도 그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각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0년 올림픽 개최국인 호주는 2000년까지 선수들의 해외원정과 코치 지원비 등 매년 50만불씩 모두 2백만불을 지원키로 하는 등,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날카로운 뒤후리가가 신선타다. 이번 대회는 일취월장한 외국선수들의 기량이 돋보였다.

태권도 보급역사만 30년이 넘는 호주는 특히 한국사범만 100여명을 포함, 400여명의 사범이 활약중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1천여개의 도장에 30만~40만에 이르는 태권도 인구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구는 수만명 정도의 극소수로 전락한 유도 인구에 비해 10여배나 많은 것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개최국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로운 강호로 주목받은 쿠바의 경우는 이번 대회에 첫 참가한 자체가 시드니를 겨냥, 태권도에 예전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미 팬암대회 등을 통해 태권도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쿠바는 지역별로 엘리트를 모집,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권도선수는 3만여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1만7천여명을 유망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쿠바선수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각급 체육단체와 대학들을 중심으로 클럽만 300개 정도로 무척 활성화돼 있으며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 이후 국가에서 선발한 800여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150여명의 코치진에게는 숙식과 월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쿠바선수단 관계자들은 특히 육상, 복싱 등과 같은 주요 전략종목에 태권도를 포함하기 직전의 상태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중국 역시 태권도협회장이 국가체육위원회 부주석을 맡을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웨이준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해, 이번 대회 남녀 8체급에 모두 출전한 중국은 쿠바와 마찬가지로 세계대회 출전 경험은 없었지만 10여년 전부터 태권도가 보급된 홍콩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최근 3~4년 전부터는 전국 23개성 대



▲아프리카 여러나라에서도 참가할 만치 태권도의 세계화는 이루어졌다.

표가 출전하는 전국태권도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북경체대를 중심으로 선수 양성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 관계자는 95년 신설된 북경체대 태권도학과와 경우 매년 정원 20~30여명의 100배가 넘는 학생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금제나 대규모의 지원금을 내걸고 실력향상에 나선 국가들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멕시코 경우 2000년까지 미화 7백만불을 지원키로 했고 99년 제14회 세계대회 개최권을 따낸 캐나다는 올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서 20만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스페인, 대만, 이란 등도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들은 이번 대회 우승자들에게는 상당액의 상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한국 선수단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대만의 경우, 선수 뿐 아니라 그동안 선수를 가르친 모든 지도자들에게까지 상금을 주는 독특하고

심판 판정은 잡음없이 공정해 핀급 8강전에서만 소청 단1건

이번 대회는 심판 판정을 둘러싼 잡음이 거의 사라지는 등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달라진 모습을 반영했다는 게 대회 관계자들의 분석.

물론 여러 차례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판정에 불만을 품은 소청은 핀급 8강전에서 단 1건만 제

기된 점이 이를 증명했다. 한편 대회 3일째 남자 미들급 중국의 쎄 펑 웨이와 터키 이브라힘 타이람의 16강전에서는 불쌍 사나운 추태가 연출돼 또 다른 '욕의 티'로 남았다. 발단은 3라운드 중국 선수가 7-5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터키 선수에 1감점을 선언하자 터키측 관중석에서 "판정이 불

올림픽 정식종목되자 솟아오르는 유망주들 멕시코, 쿠바, 이란, 이집트, 헝가리 등 상승세

파격적인 상금제를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화로 환산해 코치에게 2억원, 선수에게 1억5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는 시드니올림픽을 겨냥한 특단의 조치로 여겨진다. 스페인도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협회에서 1억5천만원, 정부에서 매달 5백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것으로 선수단 관계자들에 의해 파악됐다. 터키는 집과 함께 차를 제공한다는 말이 경기장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모두 지난 95년 세계대회 때만 해도 없었던 일들이 이 점에서 한국도 협회 차원의 포상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태권도에 집중 투자하는 나라 가운데 그동안 여타 스포츠 종목에서 큰 성과가 없거나 고립된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이란이 그 예로 거론됐다.

눈여겨 볼 상승주도 각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대부분 선수층이 얇아 새로운 선수는 아니지만 최근 1~2년 사이 급격히 기량이 향상된 모습이었다는

것이 한국선수단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남자의 경우 멕시코 헤비급의 빅토르 에스트라다 게리베이가 위협적이었다. 그는 앞돌려차기, 찌키는 물론 임기응변과 스피드가 뛰어났고 점수관리 능력에서도 돋보였다. 역시 헤비급에서 쿠바의 넬스 산체스 밀러와 프랑스의 젠틸 파스칼도 돋보였다. 두 선수 모두 정확한 득점타가 장기였으며 특히 프랑스의 오른발 득점타와 얼굴공격이 가공할 만했다. 이 가운데 이번 대회에 첫 출전한 쿠바의 밀러는 단숨에 동메달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미들급에서는 은메달을 따낸 쿠바의 알트레도 에스



▲판정불만의 소청이 단 1건 밖에 없었을 만치 이번 대회에서의 심판 판정은 공정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공정하다"는 불만과 함께 경기장 안으로 빈 병을 집어던진 데서 비롯됐다. 터키측 관계자들도 "중국선수에는 점수를 잘 주고 터키선수의 점수는 일부러 깎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조직위 관계자들이 "98청소년 태권도세계대회를 유치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질책하자 "터키 관중석 뒤에 있던 그리스인들 자리에서 던진 것 같다"며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남자부에서는 8개 체급 가운데 한국이 4개의 금메달 획득에 그쳤다. 그만큼 외국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하란은 스피드와 순발력에 고난도 기술을 겸비, 찬스포착에서 한국선수 못지 않은 유망주로 분석됐다.

여자는 핀급에서 동메달을 따낸 미국의 케이 리 안포, 페더급에서 역시 동메달을 거머쥔 대만의 라이 쉬우 웬, 헤비급에서 한국의 정명숙과 접전 끝에 은메달에 머문 러시아의 이바노바 나탈리아와 함께 웰터급에서 스페인의 엘레나 베니테즈가 한국을 위협할 기대주로 떠올랐다.

코바 오소리오와 함께 이란의 마드지드 아민토라비가 주목을 받았다. 이란의 아민토라비는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뒷차기와 오른발받아차기 등 공격력은 물론 시간관리 등에서도 노련함이 돋보였다.

밴텀급에서는 헝가리의 조세프 사림과 대만의 후왕 치 쉬웅이 요주의 인물로 분석됐다. 쉬웅은 결승에서 이란의 메디 비박 아슬을 5-2로 격파하고 남자부에서 대만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겼다.

웰터급에서는 이집트의 아메드 자하란이 두각을 보였다. 특히 자



▶격투기의 강국 이란의 선수(오른쪽)는 과감한 투지와 뛰어난 기술로 주목을 끌었다.

「복싱처럼 태권도도 올림픽 제패」

히메네스 쿠바 태권도협회장 단독회견

세계태권도 쿠바 열풍 전망

지난 11월 19일 홍콩 콜리시엄에서 개막된 제13회 세계태권도선수권 겸 제6회 세계여자대회에는 세계스포츠통의 강국 쿠바가 처음으로 등장,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히메네스 쿠바태권도협회장(60)의 인솔 아래 남녀 각각 2명씩 4체급에 출전한 쿠바는 이미 중남미 지역 대회인 팬암대회 등을 석권하며 실력을 입증한 바 있어 첫 세계대회 도전에도 불구하고 판도 변화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특히 쿠바의 출전은 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겨냥한 전력탐색의 의미를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중중국 한국을 비롯한 이란, 스페인, 대만 등 강호들은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실제로 쿠바는 알트레도 에스코르바 오소리오가 남자 미들급 결승에서 한국의 이동완과 겨뤘던 접전 끝에 3-1로 아깝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고 남자 헤비급에서도 넬슨 사엔즈 밀러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86년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 가입으로 태권도를 받아들이던 쿠바는 지난 95년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에 가입하면서 태권도를 본격 육성하기 시작, 현재 300개 클럽, 3만여명에 이르는 선수가 가입

해 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곧 육상, 복싱 등과 함께 10개 전략종목으로 선정될 전망이며 150명의 코치진과 8000여명에 이르는 엘리트들은 국가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히메네스회장은 “홍콩 세계대회 첫 출전 자체가 국가적인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드니올림픽전까지는 전략종목으로 선정될 것이 확실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콩 세계선수권대회 첫 출전이 바로 태권도에 대한 쿠바의 국가적 관심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히메네스 쿠바태권도협회장.

제13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진승태

◀김제경

관금

우 승: Juan Antonio Ramos(스페인)

결 승: Juan Antonio Ramos 3-0 Robert Cruz(필리핀)
준결승: Robert Cruz(판정승) 2-2 Nazim Yilmaz(터키)
Juan Antonio Ramos 1-0 Lee Hou Kun(대만)
■ 김병태는 예선탈락

플라이급

우 승: 진승태(한국)

결 승: 진승태 3-2 Tsai Yi Ta(대만)
준결승: Tsai Yi Ta 2-1 Geraldhy Altamirano(에콰도르)
진승태 3-0 Voludovic(프랑스)
■ 진승태는 결승에서 만난 Tsai에 매우 고전

밴텀급

우 승: Huang Chin Hsiung(대만)

결 승: Huang Chin Hsiung 5-2 Mehdi Bibak Asl(이란)
준결승: Mehdi Bibak Asl 3-0 Liu Chuang(중국)
Huang Chin Hsiung 2-1 Oscar Salazar Blanco(멕시코)
■ 김현용은 준준결승전에서 탈락(대만의 Huang Chin Hsiung에 4-2로 패배)

페더급

우 승: 김인동(한국)

결 승: 김인동 4-2 Ekrem Boyali(터키)
준결승: 김인동 5-0 Rafael Z. Carreon(멕시코)
Ekrem Boyali 1-0 Hus Chi - Hung(대만)
■ 김인동은 예선 2차전에서 말라카스카의 Andry에 3회 KO승(점프 내려찍기)

라이트급

우 승: Tamer Abdel Moneim(이집트)

결 승: Tamer Abdel Moneim 2-1
Negrel Christophe(프랑스)
준결승: Tamer Abdel Moneim 1-0 심기선(한국)
Negrel Christophe 5-3
Zoran Krajcinovic(유고슬라비아)
■ 심기선은 준결승전에서 아깝게 패해 3위에 그침

웰터급

우 승: Jose Jesus Marquaz(스페인)

결 승: Jose Jesus Marquaz 3-1
Marco Scheiterbauer(독일)
준결승: Jose Jesus Marquaz 16-14 김경훈(한국)
Marco Scheiterbauer 5-3 Madjid Afakikhamseh(이란)
■ 김경훈은 스페인의 Jose Jesus Marquaz에 세계대회 사상 최고 기록인 14-16의 다득점 혈전으로 아깝게 패배

미들급

우 승: 이동완(한국)

결 승: 이동완 3-1 Alfredo Escobar Osorio(쿠바)
준결승: 이동완 6-1 Ruben Montesinos(스페인)
Alfredo Escobar Osorio 6-2 Pechlivanis(그리스)
■ 이동완은 매점기마다 6점 이상을 올리며 우승

헤비급

우 승: 김제경(한국)

결 승: 김제경 5-1 Hassan Aslali(이란)
준결승: 김제경 TKO(2회)
Aldosari Khalid(사우디아라비아)
Hassan Aslani 6-5 Nelson Saenz Miller(쿠바)

제6회 여자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핀급

우 승: 양소희(한국)

결 승: 양소희 4-3 Huang Li(중국)

준결승: 양소희 3-0 Thy Vy Sok(호주)

Huang Li 2-1 Kay Lee Ann poe(미국)

플라이급

우 승: Chi shu Ju(대만)

결 승: Chi shu Ju 1-0 윤송희(한국)

준결승: Chi shu Ju 2-1 Kylie Treadwell(호주)

윤송희 3-0 Mandy Patricia meelon(미국)

■ 윤송희는 결승에서 만난 Chi shu Ju에게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다 경기종료 1초를 남기고 실점, 아깝게 졌다.

밴텀급

우 승: 황은숙(한국)

결 승: 황은숙 2-0 Roxane Forget(캐나다)

준결승: 황은숙(판정승) 2-2 Elisabeth Dwaado(스페인)

Roxane Forget 3-1 Lauren Burns(호주)

페더급

우 승: 정재은(한국)

결 승: 정재은 2-2(-1) Zelmanovitch Carine(프랑스)

준결승: 정재은(판정승) 2-2 Lai Hsu Wen(대만)

Zelmanovitch Carine 4-2 Paveeradee

Pansombut(태국)

■ 정재은은 예선에서 만난 일본의 Saico Nakagawa에 2회 통쾌한 KO승(원발 앞돌려차기)

라이트급

우 승: 강해은(한국)

결 승: 강해은 3-1 Hung Chin Chun(대만)

준결승: 강해은 3-1 Luisa Arranz(스페인)

Hung Chia Chun 5-4 Milet Filipovic(크로아티아)

■ 강해은은 예선에서 모리셔스의 Hung Quian에 무려 12-0으로 이겼다

웰터급

우 승: 조항미(한국)

결 승: 조항미 9-2 Karpathaki(그리스)

조항미 4-0 Hsu Chih - Ling(대만)

Karpathaki 3-2 Ramirez Monroy Marlen(멕시코)

■ 조항미는 준결승전에서 만난 Kuria Couzamenko에 무려 14-0으로 대승

미들급

우 승: 우연정(한국)

결 승: 우연정 4-1 Bourgnigue Mounia(모로코)

준결승: 우연정 13-6 Ireane Ruiz(스페인)

Bourgnigue Mounia 3-1 Monica D.R. Jaime(멕시코)

헤비급

우 승: 정명숙(한국)

결 승: 정명숙 2-1 Iranova Natara(러시아)

준결승: 정명숙 3-1 Natasa Vermar(크로아티아)

Iranova Natalia 5-0 Chiu Meng - Jen(대만)

■ 정명숙은 세계대회 3연패 달성



정명숙

태권도
동아리 탐방

1

이화여대
태권도부

태권도 한마당 6연패의 꿈!

이화여대 태권도 부는 해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이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위하여 밤늦도록 태권도를 수련하고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누며 동아리 간의 온기를 나눈다.

이대는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창설된 1992년도 대회 때부터 빠짐없이 매년

참가해 이대 태권도 부의 명성을 날렸다. 올해 참가한 종목은 태권체조. 그룹 <자자>가 부른 '버스 안에서' 곡에 태권도 품새를 흥겨운 율동으로 표현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10일 정도 밖에 연습을 못했다. 그렇지만 이대 태권도 부는 내심 자신만만하다.

자신감있고

당당하고

예의바른

이대 태권도인

지난 5월 이대 축제기간에 태권도 부는 이대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권도 품새와 위력적인 격파로 친구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태권체조를 발표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한마당 대회에 출전한 작품은 5월 축제 때 선보인 태권체조를 일부 보완해서 나온 것이다.

"흥겹고 신나게 연습을 하였지만 막상 대회 출전을 앞두고 보니 긴장이 되고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절도 있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며 대회 출전에 앞서 마무리 연습에 여념이 없는 태권도 동아리.

그들은 왜 강의도 빼먹어가면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일까?

"그 동안 저희가 익힌 태권도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심적인 부담이 있으나 무언가 해냈다는 자부심,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권도인으로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서 이대는 태권체조 부문에서 당당히 우수상을 차지하며 선배들의 뒤를 이어 6연패를 달성했다.

태권도 한마당 대회, 6년연속 우수상

각 대학마다 태권도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어느 대학보다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이화여대다. 이대 태권도 동아리는 해마다 봄, 가을에 4개대학 친선태권도대회에도 빠짐없이 출전하고 있다. 이대를 비롯해 서울대, 서울고대, 항공대 태권도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품새, 격파, 겨루기 대회를 통해 실력을 겨루며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자랑, 왕성한 활동도

또한 매년 가을이면 전국대학 태권도동아리대회에도 출전한다. 아마추어들 간의 시합이기 때문에 이겨도 그만, 쳐도 그만이지만 그들은 늘 대회를 앞두고는 저마다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한다. 지난 11월 중순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생활학과 2학년인 김혜영(1단)이 동메달을 따냈다고 자랑한다.

“여자대학이기 때문에 여자들만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유로움 때문에 저희가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남녀공학에서는 오히려 태권도 부처럼 운동 종목에 거의 여학생들이 없습니니다. 도복을 갈아입는다거나, 여자가 무슨 태권도를 배우느냐는 굵지 않은 시선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쉽게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대에서 태권도가 활성화되는 이유를 여자들만의 자유로움이라고 진단하는 이대 태권도 동아리 백지영 부장(경제학과 3학년, 1단)이다.

태권도 부는 일

주일에 4번 정기적으로 모여 학관 레크레이션홀 4층에서 태권도를 수련한다. 오후 6시에 강의를 모두 마친 학생들은 태권도 동아리 방으로 몰려와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6시30분부터 8시까지 태권도의 우렁찬 기합소리를 가르며 땀흘려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도 수련에는 보통 2, 3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다.

태권도 지도는 태권도 부장인 백지영씨를 비롯해 태권도 유단자가 맡고 있다. 매주 화요일은 이대 부근에 있는 북아현체육관의 박재천 관장이 학교에 와서 태권도를 지도해준다.

“85학번 선배언니들이 우리들끼리 태권도 수련을 하는 것보다 사범님을 모시고 제대로 배워보라고 해서 주위 도장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박관장님께서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선포 응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2년간 매주 이대 태권도 동아리를 지도하며 많은 유단자를 배출해온 박관장이 있었기에 이대 태권도부가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박관장님께서서는 저희들을 지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성으로서 최고 지성인인 이대 태권도 부의 활성화는 여성의 태권도 수련에 긍정적



▲ 태권도 한마당 '97에 출전한 이대 태권도부원들.



▲음악에 맞춰 태권도 품새를 흥겨운 율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대 태권도 부.

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십니다. 또한 저희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도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도하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라는 열의를 갖고 지도해 주시는 박관장님이 늘 고마울 따름이라고 이대 태권도 부는 입을 모았다.

하며 끈끈한 정이 싹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형제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제 3의 성이라고 부른다.

이대 태권도부가 축제 때 연무시범을 보이면 서울대 태권도 부는 기꺼이 찬조 출연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태권도는 오히려 여자들에게 알맞은 운동 군살빼고 유연성 길러 모두 늘씬한 미인

한마당 대회 기간 중에는 이대 태권도 부와 함께 격주마다 태권도를 함께 수련하는 서울대 태권도 부 학생들이 응원을 주었다.

23년간 서울대와 교류

서울대 공업화학과 3학년인 최원준씨(3단)는 “이대 태권도 부는 매우 열의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자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대 태권도 부의 매력입니다.”

이대 태권도 부는 격주 토요일마다 이대와 서울대를 오가며 태권도를 함께 수련하고 있다. 이대에 태권도부가 창설된 것은 1975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함께 땀흘리며 수련하고 나면 형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없어지고 인간적인 대화들이 솔직하게 오고가는 가운데 학문과 인생을 논

10월에 있는 서울대 축제 때는 이대 태권도부가 찬조 출연을 해서 자리를 빛내준다. 이들은 격주로 서로의 대학을 오가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 외에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3박4일간 산이나 바다로 합동수련회를 간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대와 서울대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다보니 태권도 부원간에 결혼에 골인한 커플도 여러 쌍 나왔다. 지금도 곧 결혼을 앞둔 선배가 있는데 이대 교육공학과 92학번 박민진씨와 서울대 90학번 양창렬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귀뜸한다.

선배가 끌고 후배가 밀고

이대의 97학번 신입생들 중에 태권도 부를 지원한 사람은 5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1년이 지나는 사이 진짜 태권도 동아리 회원으로 끝까지 남은 숫자는 5명 내외.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태권도 정식멤버는 2, 30

명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태권도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와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태권도 부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졸업한 선배들도 태권도 동아리 행사에 적극적이다. 각종 대회 출전이나 행사 등에 물질적으로 찬조해 주는 물론 후배들을 찾아와 격려해 주는 등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은 남다르다.

“태권도를 해서 모두 사람들이 좋은 것인지, 원래 사람들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권도 선후배들 모두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이 태권도 부 백지영 부장의 말이다.

“선배 언니들 모두 졸업 후 각 분야에 취직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언니들은 후배들에게 태권도 부원으로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태권도 동아리들은 선배들 덕분에 면접에 자신감이 생겼다. 취직시험 때 면접을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태권도를 한 것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기업에서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선배들이 보여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예의바른 모습 때문이다.

기쁜 몸과 마음으로 기쁜 대학생들

신입생들이 태권도 동아리에 들어오면 우선 태권도의 기본정신을 가르친다. 그리고 태권도 수련 때 지켜야 할 예절, 선배들에 대한 예절, 도복을 다루는 법, 태권도 동아리 방의 정리정돈부터 시킨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운동을 취미로 해보겠다고 하여 태권도 동아리 문을 노크하지만 처음 해보는 운동이라 발차기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태권도의 기본 품새를 몸에 익힐 만큼 따라하게 되면 태권도 수련시간이 기다려진다.

보건교육과 2학년인 박은정씨(2급)는 “처음에는 태권도 부에 들어와 태권도를 수련하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품새를 익혀 급이 올라가니까 힘든 것보다도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좀 더 일찍 태권도를 알고 배웠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대 태권도부는 '97 태권도 한마당 태권체조부문'에 참가해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대학에 들어가면 운동 한가지쯤은 배워보고 싶어 태권도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약학과 1학년 김보현씨는 “태권도 수련을 위해 저녁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선배 언니들, 함께 태권도를 배우며 우정을 쌓아 가는 친구들을 알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그리고 태권도 수련으로 체력이 좋아지고 유연성도 길러졌습니다. 운동을 해서 맘을 풀려서인지 훨씬 기쁜 몸과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내년에도 많은 후배들이 태권도 부에 들어온다면 후회 없을 것이라도 강조하는 그녀. 마지막으로 “태권도가 여학생들이 하기에 과격한 운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학생 구분없이 태권도를 의무교육으로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태권도를 실제 배워보니 오히려 여자들에게 더 알맞은 운동 같아요. 유연성을 기르고 군살을 없애주고요.” 말을 마치는 그녀 뿐만 아니라 동아리 회원들 모두 늘씬한 미인들 뿐이었다.

(글: 도건영/ 태권도 라이터)



하 권 의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의 권위자들이 쓰는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일과성 활막염

3일 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파.”하면서 걸리지 못하는 5살된 남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외래로 찾아왔다.

부모의 이야기로는 최근 2주일 전부터 감기를 앓았고 감기증세는 이제 거의 나아지는데, 갑자기 무릎을 아파하면서 걸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평소 다니던 동네의 소아과 의원을 찾아가더니 혹시 심각한 병일 수도 있으니 큰 병원을 찾아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었다. 환아의 다리를 진찰해 보았더니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리를 절었으나 무릎 주위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다리는 괜찮나요?”, “심각한 병은 아님니까?”, “치료할 수 있나요?” 등등 부모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매우 당황해 하면서 질문을 퍼붓는다.

아이의 골반 및 무릎을 방사선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니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다리는 현재 큰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아마도 일과성 활막염이란 병이 우측 고관절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과를 1주일 정도만 관찰하고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니 그제야 부모는 안심을 하는 모습이였다.

이 어린이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1주일 이 지나자 잘 걸으면서 외래로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린이들이 찬공기에 노출되어 감기에 잘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 중 일부에서 소위 「일과성 활막염」이란 병이 고관절(엉덩이 관절)에 발생하게 된다. 일과성 활막염이 몸에 발생하게 되면 잘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걸지 못하고, 걸더라도 다리를 심하게 절며, 병은 고관절에 있는데 증상은 무릎통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개 3세에서 8세 사이의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에 비해 조금 발생빈도가 높으며 정형외과를 찾는 어린이들 중 상당히 그 수효가 많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개 70% 정도에서 감기나 중이염 등, 상기도 감염과 같이 동반된다.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어



감기 잘 걸리는 어린이에 많이 나타나 2주일 정도 충분히 안정치하면 완치

린이라면 이런 일과성 활막염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다.

고관절에 병이 있는데 증상은 무릎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에 병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를 소위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릎에 관계하는 신경을 고관절 부위와 공유하기 때문으로 이는 마치 협심증 증세의 환자가 간혹 가슴이 아닌 왼쪽 어깨관절이나 왼쪽 등부위를 아파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대개는 열흘에서 2주일 정도 증세가 지속되는데 대개 충분한 안정만으로 치료가 되고, 휴식 도중 많이 아파하면 진통소염제를 복용시키기도 한다.

이 질병은 병명 그대로 「일과성」으로 별 후유증없이 완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과성 활막염」은 다른 심각한 병의 초기증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과 검사없이 마음 놓고 방치하면 안된다.

유사한 질환으로는 고관절의 화농성 관절염, 이 주위의 골수염이나 결핵,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등을 들 수 있다.

화농성 관절염은 대개 고열을 같이 동반하며 증세가 매우 심각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상태를 보이는 위급한 병으로 응급으로 수술을 하여 관절에 고인 고름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후유증이 발생하므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대개 혈액검사와 관절천자를 통한 관절액 검사 등을 시행하여 발견한다.

관절 주위의 골수염 등도 이와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는데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으로 알아낼 수 있다.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란 대퇴골의 엉덩이 관절 부위 뼈의 영양공급을 하는 혈류가 차단되어 서서히 뼈의 변형이 진행되는 병이다. 이 병의 초기의 증상은 「일과성 활막염」과 매우 유사하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하여야만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질병은 조기진단이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기 치료를 해야만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심각한 병이고

평소에 잘 뛰어 노는 남자 어린이에게 발생하므로 의사들은 일과성 활막염으로 진단을 내린 어린이들이라고 증세가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이 병의 초기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검사들을 병행하게 된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식생활 패턴이 서양화되고 영양공급이 좋아지면서 어린이의 체격이 커지고 있으나, 실내에서 TV나 컴퓨터 등에만 붙어있거나, 극성 부모들이 조기교육에 집착하여 어린 나이부터 각종 학원 등의 공부에 매달리게 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아무지 못하게 성장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저항력은 과거보다 감소되어 이러한 「일과성 활막염」 등의 질환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어린이들을 너무 따뜻한 집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키울 것이 아니라 외부 온도에 적당히 노출시키고, 적당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하여 몸 안의 저항력이 저절로 배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챔피언의 영양학



신체조양학과 교수
장정옥 박사
한국체육대학교 이사

장 정 옥 박사

수분 22% 잃으면 목숨까지 위험 계절에 맞는 음식 먹어야 영양식

우리의 몸은 수분을 22%가량 잃게 되면 목숨까지 잃게 되도록 열개가 짜여져 있다.

특히 운동 능력은 수분 섭취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여름에는 어떤 음식, 겨울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도 선수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포타슘(K)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음료에는 소듐염 뿐만 아니라 포타슘을 함유하는 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광고 내용과는 달리 땀을 통한 포타슘의 손실은 매우 적으므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포타슘의 고갈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일상적인 식사로부터 섭취된 포타슘 중 상당량은 소변으로 배설되고 소량만이 체내에 남아 체조직의 보수와 정상 세포의 대치에 이용된다.

따라서 포타슘의 보충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전해질의 보충은 권장되지 않으나 극단적인 지구력이 필요한 경기, 예를 들면 50마일(80.45Km) 육상, 170마일(160.9Km) 자

전거 경기 등에서는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각종 질병이나 이뇨제 및 설사약의 복용으로 체내에 포타슘을 보유시키는 기전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량의 포타슘 손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운동선수가 체중 감소를 위하여 이뇨제나 하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분의 상실과 탈수

물은 우리 몸으로부터 4가지 길을 통해 유실된다. 땀으로서 피부를 통한 유실, 호흡을 통한 폐로부터의 유실, 뇨로써 배설되는 신장으로부터의 유실, 그리고 변으로써 배설되는 장으로부터의 유실이 있다. 물이

과량 상실되면 심한 갈증이 일어난다.

독일의 생리학자 Rubner는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과 지방 전체와 체 단백질 중 약 반은 상실되어도 큰 위험은 없으나 체내 수분량의 10%를 상실하면 위험하며 22%를 상실하면 치명적이라 하였다.

갈증의 감각은 세포 외수가 감소해도 일어나지 않고 세포내수가 감소해서 비로소 일어난다. 또 부종이 생겼을 때는 주로 조직간액의 물이 증가한 것이다.

물의 영양학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물과 탄수화물을 보충할 경우(동작을 하는데), 어떤 상관적인 영향이 있나를 알기 위해서 6마리의 개를 수레바퀴 위에서 지칠 때까지 달리게 하였다. 이들 개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지 17시간 후에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고 달리게 하였을 때 평균 1,190칼로리를 낼 수 있었다. 탄수화물만 보충하였을 때에는 1,3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었고 달리는 동안 15리터의 물을 섭취하였을 때에는 2,140칼로리나 소비할 때까지 견딜 수 있었다.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Edmund Hillary경은 그의 성공은 마지막 며칠 동안 다른 원정대에는 걸립되었던 물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운동선수들이 여름에 취해야 할 식품

여름 무더위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비타민 B1, C의 부족을 가져오고 지치기 쉽게 만든다. 또 많은 땀을 통해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대사 작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위장 기능도 약해져 식욕을 잃기 쉬운데다 냉수나 청량음료만 마구 마셔 대변 소화액이 묽어져 여름을 타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은 양이지만 흡수가 잘 되는 영양식을 섭취하는 것



이 좋다.

여름에 좋은 과일 중에는 수박, 딸기, 참외, 토마토, 복숭아 등이 있는데 이 과일들은 비타민 C, 과당, 수분 등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다.

흔히 비타민 C가 스테미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비타민 C도 부신피질 호르몬의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등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이들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외에 균형 있는 식사를 취함으로써 스테미나를 유지할 수 있다.

채소류 중 스테미나를 돕는 것은 셀러리와 표고버섯, 당근, 시금치, 풋고추, 깻잎, 양파, 무 등이다. 셀러리는 혈액순환, 신경계통 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비타민 B1, B2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 증강, 스테미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표고버섯에는 역시 비타민 B1, B2가 많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 작용을 한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및 미네랄이, 당근에는 카로틴, 비타민 A가 풍부해 스테미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양파는 100g중 40칼로리의 열량을 내며 무는 25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육류, 생선 등 동물성 식품 가운데 여름철 스테미나 식으로 흔히 찾는 것이 로스헴, 장어, 삼계탕, 추어탕 등이다.

생선 중 도미는 특히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많은 강정식이다.

챔피언의 영양학

미역에는 칼슘이 대단히 많고 옥소,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데다 강한 알칼리 식품에 흡수력도 좋다. 그러므로 여름에 냉국을 해 먹으면 좋다. 전복 100g중에는 22g의 단백질이 있다.

따라서 여름에는 지속적으로 스테미너를 기르기 위해서는 비타민 B가 풍부한 보리를 비롯해 콩, 감자류 등 잡곡밥을 먹는 게 좋다. 보리밥에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면 여름을 이겨내는 훌륭한 영양식이 된다.

추위를 이기는 음식물

추운 날씨에 음식을 먹지 않아 속이 비면 더욱 추위를 느낀다. 또 뚱뚱한 사람보다 야인 사람은 더욱 추위를 잘 탄다.

이러한 사실은 추위와 에너지, 즉 음식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해져

취 비율을 다소 늘릴 필요가 있다.

지방의 섭취 방법으로는 30대 전반의 젊은 층은 버터, 치즈, 단걀, 쇠기름, 간유, 돼지비계, 생선 기름 등 동물성 지방도 무방하나 30대 후반 이후의 사람은 가능한 한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면실유 등과 셀러드유, 땅콩, 호두, 잣, 깨마가린 등 식물성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고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고지방식을 너무 많이 하면 체력의 증가로 지구력 감퇴, 순발력 저하 현상을 초래하므로 육식을 할 때는 시금치, 무, 당근, 셀러드, 굴, 표고버섯을 반드시 섞어 먹어야 되며 과일도 많이 먹어야 한다.

역도, 레슬링, 권투 선수들은 신선한 생선회와 멸치, 미역을 한 달에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결핍증세가 나타나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

여름철엔 신선한 과일, 야채 먹고 추위 이기려면 지방, 단백질 많이

기초대사량이 여름보다 10%가량 늘어나게 됨으로 이를 음식물로 보충하여야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피부가 자극되고 식욕 증추가 흥분, 일반적으로 식욕이 증진된다.

추위에 대항해 피하지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우리 몸의 요구는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다.

온대 지방의 사람들은 하루 평균 2700-3000킬로 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되는 데 비해 더위를 이겨야 하는 열대 지방민들은 하루 3000-4500킬로 칼로리가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하 40도 이하의 혹한에서 견디어야 하는 남극 탐험가들은 하루 1만 킬로 칼로리 가까운 식사를 하는 때도 있으며 따라서 겨울철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많은 지방, 비타민 등을 섭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소 식물 섭취에서 단순한 에너지의 방출 비율로 보면 단백질, 지방, 합수탄수의 섭취 비율은 1 : 2 : 5이지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방질 단백질의 섭

나 물의 경우는 다르다. 즉 우리 몸에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고는 단 며칠도 견디기가 어렵다.

근육활동시 수분 함량의 변화

지방이 없는 근육조직이 지방조직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음은 근육의 왕성한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화학반응의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잘 훈련된 운동선수라면 체중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클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수분 함량은 남녀 각각 60% 및 55%이나 근육질의 남자 운동선수들 (수영, 육상, 체조 등)은 70%나 되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운동을 하는 동안은 근육의 활동으로 체내 수분 분포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 즉, 운동을 시작하면 세포 외액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장소인 세포내액으로 이동하고 근육 세포로 이동한 세포외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혈장으로부터 수분이 신속하게 이동되므로 순환하



는 혈액의 양이 감소된다.
따라서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므로 소변 배설 량도 줄어들게 된다.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 땀과 증가된 호흡으로 인한 수분의 손실이 증가되므로 소변 배설 량의 감소는 체내 수분을 보유시키고자 하는 조절기능의 하나가 된다.

수분의 보충

일정 기간 동안의 운동으로 탈수증세가 나타날 경우, 갈증이 날 때 먹는 물의 양만큼으로는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에 부족하다. 수분 필요량을 충족시킬 정도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수분 결핍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땀으로 인한 체중(수분)의 손실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기온에서 운동하는데 익숙한 잘 훈련받은 운동

선수는 잘 훈련받지 못한 선수보다 스스로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며 더 많은 땀을 흘리므로 더욱 효과적으로 체열을 발산한다.

평소에 많은 물을 먹어 손실된 수분을 거의 대부분 보충해 주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더운 날씨에 격렬한 운동을 한 후 24시간 내에 보충되는 수분은 흘린 땀의 겨우 1/3-1/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더운 날씨에 운동하는 모든 운동선수는 매 훈련 또는 경기 전후에 체중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손실된 수분량으로 보고 수분 섭취 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당한 수분 공급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을 경우)

체 수분의 손실이 체중의 3%이상 이면 (90Kg인 선수에서 27g이상) 대개의 경우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탈수를 예방하여 경기나 훈련시 적절한 성과를 얻고자 할 때는 (목이 마르다는 갈증의 정도가 수분 필요량의 올바른 척도가 아니므로) 계획을

세워 일정한 수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탈수와 근육 경련

근육 경련은 흔히 탈수와 관련이 있다. 탈수 이외에도 전해질 불균형 또는 국소 빈혈 등으로 인하여 통증과 함께 무의식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하게 땀을 흘렸을 때 탈수로 인해 발생하는 근육 수축이 가장 흔하다.

보통의 날씨에서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선수 등은 한 시간에 4-6과온도의 수분 손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운동 20분마다 약 1컵(240cc) 정도의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더운 날씨에 며칠간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탈수증」이 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계속적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역대 **세계 선수권 대회**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연재 제10회〉

제10회 (제3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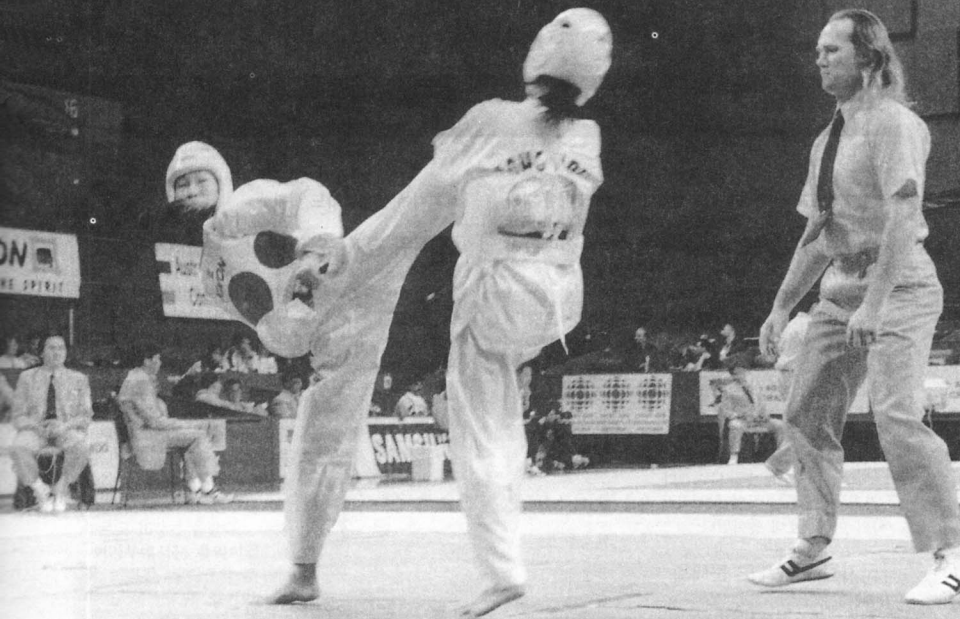
올림픽 발상지서 태권도세계대회 머리보호대 등 최초로 공인용품 사용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0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991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평화와 우정의 체육관에서 남자 49개국 273명, 여자 34개국 161명 선수 및 임원 272명 포함 7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김운용 총재는 그의 메시지에서 “이 대회를 통해 올림픽 정신의 이상과 페어플레이 정신의 함양을 떨쳐

태권도인 상호간의 이해와 친선 증진에 기여하는 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리스 태권도협회 회장이며 대회조직위원장인 조지 보라리스(현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는 “올림픽 이상과 공정한 경기정신의 발상지인 그리스는 이번 세계대회와 별도로 스포츠의 영원한 근원이 영원히 살아있으며 올림픽 정신이 여전히 세계 운동선수들 사이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되길 바란다”고.



▲10회 세계대회는 외국인들의 전력이 한국 선수들, 특히 여자부 선수들을 강력히 위협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세계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10월 26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 19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경기규칙개정과 신규회원국 가입승인을 통과시켰다. 경기규칙개정안은 여자가슴보호대 착용의무, 채점기나 채점표 사용시 2인 이상의 부심 인정점수를 유효화, 그리고 감점행위에 의한 부상으로 경기중단시 원인 제공자를 패자로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리고 몽고, 아이슬랜드, 루마니아 등 3개국에 새 회원국이 되었다.

국기원에서 발급하는 단증문제에 대한 토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국기원 및 세계연맹 대표 각 1명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10월 26일 오후 3시부터 대회개최 장소인 평화와 우정의 체육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 회장과 강원식 전무이사를 비롯, 53개국 회의대표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차기대회 개최지 선정문제는 일본과 대만이 유치신청을 했으나 신청국들의 제반 미비 사항으로 결정이 유보됐다. 그리고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 발표되었다. 태권도 시범경기는

1992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Palau Blaugrana 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참가선수는 남자 26개국 64명, 여자 25개국 64명, 총 128명으로 제한되었다.

한국대표선수, 태능선수촌에 입촌

91년 4월 국가대표선수단(남자 16명, 코치 2명)이 태능선수촌에 입촌,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한달간 강훈련에 돌입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지난 1월 9일부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대비해 전년도 국가대표선수들 중심으로 훈련을 해왔는데 국가대표 최준선발전을 통해 확정됐다.

훈련의 중점은 전문체력과 전술위주 세부훈련으로 이뤄졌고, 특히 짓기(스텝) 및 속임동작(페인트)을 이용한 전술적인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 배양을 강조했다.

국제심판 세미나

세계태권도연맹은 제25회 국제심판강습회 및 제11회 국제심판보수교육을 10월 21일 - 26일까지 고대올림픽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발상지인 IOA(국제올림픽아카데미)에서 15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고 강사로는 국제심판분과위 김찬용 위원장을 비롯 박현섭 부위원장 및 국기원 김병운 차장이었다.

이번 세미나가 고대올림픽 발상지에 위치한 IOA에서 실시해 교육생들에게 숭고한 올림픽 정신 고양 및 자부심을 심어줬다.

최초 공인 경기용품 사용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번 대회에 최초로 공인용품을 착용도록하여 경기로 인한 부상방지 및 경기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용품으로는 독일 「런」사의 용품 및 미국 「마초」사의 머리보호대 등이었다.

국기원 단증제도 문제화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이며 유럽연맹 회장인 마르코 사일러씨가 주축이 돼 일부 유럽연맹 회원국가 대표들이 동조, 제기한 국기원 단증제도 문제로 총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결과는 국기원은 세계연맹과 집행위들로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를 구성, 늦어도 차기 대회 이전에 해결하도록 결의했다.

이로써 관련기관은 2000년대의 비전 정립을 위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합리적이고 절대공감대를 충족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그리스, 독일 심판판정 불복

그리스팀은 심판판정에 불복, 한동안 매트 위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고 이에 관재도 동조, 소요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독일팀도 일본과의 대전에서 패하자 소청을 제기했는데 부결되자 진정서를 제출,

폐회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조직위 경기운영 미흡

대회 조직위는 대표자회의시 공지한 사실과는 다르게 체급별 경기일정을 변경하기도 하여 혼선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매일 경기운영에 있어 오후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탓에 각 팀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이번 대회는 7일간의 경기일정으로 인해 중간 휴식 시간이 많았다.

이는 선수들에게 지루함을 안겨주기도 했고 또한 팀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국대표선수단

●단장

이건수 (전북태권도협회 회장)

●감독

(남) 김대현 (대태협 심판분과위 위원장)

(여) 이근우 (부산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코치

(남) 윤창욱 (한성고교 교사)

(여) 이흥규 (부산남여상 교사)

●트레이너

(남) 김영국 (경남체고 코치)

(여) 양기모 (인천체고 교사)

●선수

체급	남자	여자
핀	강철우 (국군체육부대)	김진성 (송곡고)
플라이	김철호 (현대자동차)	이화진 (경희대)
밴텀	선상준 (청주대)	박동선 (성신여대)
페더	장 혁 (한국체대)	박진경 (상명여대)
라이트	양대승 (조선맥주)	정은옥 (상명여대)
웰터	박용웅 (국군체육부대)	조항미 (인천체고)
미들	윤순철 (국군체육부대)	양인덕 (상명여대)
헤비	김봉근 (경희대)	백영미 (경희대)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7일간의 체급별 경기내용

10월 28일(월): 대회 첫 날 남자부는 4체급 예상 경기가 펼쳐졌다.

플라이급의 김철호가 사이프러스의 쿠틀루프스를 누르고, 밴텀급의 선상준과 웰터급의 박용웅, 미들급의 윤순철도 각각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사이프러스 선수를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플라이급의 이화진, 웰터급의 조항미, 미들급의 양인덕, 밴텀급의 박동선 선수는 1차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0월 29일(화): 남자부 핀급의 강철우, 페더급의 장혁 선수는 각각 이집트의 하비 파티 및 덴마크의 모르텐센 선수를 맞아 판정승을 거둬 8강에 진출했고, 여자부 핀급에 김진성과 페더급에 박진경 선수가 출전, 김진성은 멕시코 선수를 4:2 판정승, 박진경은 부전승으로 2차전에 진출했다.

10월 30일(수): 남자부 라이트급의 양대승, 헤비급에 김봉곤 선수가 출전, 양대승은 그리스의 그라니아스와 오지리의 코레루스를 각각 판정승, 8강에 진출했다. 김봉곤 역시 브라질의 프레이타스와 이란의 자라크시 파르자드를 눌러 역시 순조롭게 8강에 올랐다.

10월 31일(목): 남자부 플라이급의 김철호는 네덜란드의 타필리투를 꺾고 결승에 진출, 덴마크의 살림을 판정으로 물리쳐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웰터급의 박용웅은 준결승에서 멕시코의 후고 가르시아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 미국의 빌라사나에 판정

승, 정상에 올랐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플라이급의 이화진은 준준결승전에서 터키의 아르주만 선수의 받아차기로 8:6으로 패



▲ 10회 세계대회 개회식의 모습. 마스코트의 모양이 재미있다.

해 메달전에서 탈락했고 웰터급의 조항미는 준준결승에서 호주 선수를 맞아 3:0 판정승. 그러나 준결승에서 미국의 장신 리마스 알레네를 맞아 선전했으나 2:3으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11월 1일(금): 남자부 밴텀급의 선상준은 준결승에서 캐나다의 네이jem에 판정패로 동메달에 머물렀고 미들급의 윤순철은 결승에서 터키의 예하알람에 판정승, 남자탐에 3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한편 여자부 밴텀급의 박동선은 준결승전에서 발바닥에 심한 상처를 입고 결승전에 진출해 터키의 돈두 사힌과의 대전에서 경기종료 20초까지 3:3에서 원발 얼굴돌려차기를 적중,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그리고 양인덕은 준결승전에서 그리스 선수에게 6:0으로 큰 득점차로 판정승, 결승전서 미국의 아론 차벨라에게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 미국팀과 함께 한 김운용 WTF 총재(가운데), 오른쪽은 이금홍 현 WTF 사무총장.

5:4로 신승, 두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다.

11월 29일(토): 남자부 페더급의 장혁은 결승전서 네덜란드 스테판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한편 핀급의 강철우와 여자 핀급의 김진성은 준결승에서 대만과 스페인 선수에게 각각 판정으로 져 동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페더급의 박진경은 터키와의 준결승전에서 3:3 동점, 우세승이 터키에 주어져 예선탈락했다.

11월 3일(일): 남자 라이트급의 양대승은 결승전서 필리핀의 아브라티크를 맞아 노련한 경기운영 및 탁월한 기량으로 꺾고 금메달 하나를 추가했다.

한편 헤비급의 김봉근은 8강에서 독일의 올리비 선수에게 신장과 체력에 밀려 판정패했고 여자 라이트급의 정은옥은 준결승전서 네덜란드를 꺾고 결승전서 대만의 첸이안과의 접전을 펼친 결과 6:5로 판정승, 또 하나의 금메달을 추가했다.그러

나 헤비급의 백영미는 예선전서 장신의 미국 러브 선수에게 패했다. 러브는 2m의 장신이며 흑인 주부로 10년간 대표선수로 활약하였다.

남자 10연패 여자 3연패

이로써 한국은 남자부에서 금5, 동2을 획득, 금2 은1를 따낸 덴마크를 제치고 10연패, 또한 여자부도 금3,

동2로 금1, 은3의 터키를 누르고 3연패로 종합우승했다.



▲그리스 체육부장관과 함께 한 김운용 총재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 종합전적

남자부					여자부				
1위	한국	금5		동2	한국	금3		동2	
2위	덴마크	금2	은1		터키	금1	은3		
3위	스페인	금1		동2	미국	금2	은1		
4위	이집트		은1	동2	스페인	금1	은1	동3	
5위	미국		은1	동1	대만	금1			

◆ 남자 입상자 명단

핀급(-50Kg)	1. Gergely Salim 2. Chang Jung San 3. Syrous Rezaei 강철우	DEN TPE IRN KOR
플라이급(-54Kg)	1. 김철호 2. Salim Josef 3. Esparza Dabriel Tapilatu Django	KOR DEN ESP HOL
밴텀급(-58Kg)	1. Alonso Angel 2. Sayen Najem 3. 서상준 Ekrem Boyali	ESP CAN KOR TUR
페더급(-64Kg)	1. 장 혁 2. Tapilatu Stefan 3. Concalves Jorge Tamer Ard El Monem	KOR HOR BRA EGY
라이트급(-70Kg)	1. 양대승 2. Abratique Ramilito 3. Collinson Hohn Hiang Ming Jen	KOR PHI AUS TPE
웰터급(-76Kg)	1. 박용웅 2. Villasana James 3. Kondo Hisashi Hugo Garcia	KOR USA JAP MEX
미들급(-83Kg)	1. 윤순철 2. Yehya Alam 3. Metin Sahin Perez Herbert	KOR EGY TUR USA
헤비급(+83Kg)	1. Sorensen Tonny 2. Shawe Oliver 3. Jordan Miguell Amr Khairy	DEN GER ESP EGY

◆ 여자 입상자 명단

핀급(-43Kg)	1. Delgado Elisabeth 2. Gulner Yerlisu 3. Wu Shan-Chen 김진성	ESP TUR TPE KOR
플라이급(-47Kg)	1. Arzu Tan 2. Van Der Pas 3. Vanzuela Tanghui-Wen	TUR HOR ARG TPE
밴텀급(-51Kg)	1. 박동선 2. Dondur Sahin 3. Walker Kathy Solis Rosario	KOR TUR GEB ESP
페더급(-55Kg)	1. Tung Ya-Ling 2. Aysegul Ergin 3. Lopes Josefina	TPE TUR EGY
라이트급(-60Kg)	1. 정은옥 2. Chen Yi-An 3. Thielman Minouchka Knoll Dolores	KOR TPE HOL MEX
웰터급(-65Kg)	1. Limas Arlene 2. Bistuer Coral 3. 조함미 Drosidou E.	USA ESP KOR GER
미들급(-70Kg)	1. 양인득 2. Aaron Chavela 3. Del Real Ketesidu T.	KOR USA MEX GRE
헤비급(+70Kg)	1. Love Lynette 2. Franssen Yvonne 3. Widehov Anna Hlpf Bettina	USA CAN SWE GRE



태권도 가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인다



■ 제13회 (제6회 여자) 홍콩세계대회 개회식 김운용 총재 축하사

Wu Shaozu장관, Leung박사, O. Sales위원장, IOC 위원, 귀빈 여러분, 태권도 가족 여러분, 중국 홍콩에서 열리는 제13회 세계태권도대회 및 제6회 여자 세계태권도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 모인 모든 태권도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대회는 1997년 7월 1일자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올림픽 종목으로서 처음으로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란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86개국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국가연맹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 153개국의 회원 협회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태권도 인구는 4,000만명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스포츠가 100년 동안 이루어 낸 것을 태권도는 20년만에 이루어 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에는 서양이 동양에 스포츠를 수출했지

만 이제는 동양이 서양에 스포츠를 수출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유도, 그 다음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라고 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본인은 모든 태권도 가족들에게 태권도를 전 세계인들에게 수용되고 사랑받는 국제스포츠로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우수성 뿐 아니라 더 나은, 더 우호적인, 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해 나아가면서 '빨리, 높이, 힘차게'라는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경기에서의 성공을, 또한 홍콩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으로 대회를 준비해 온 조직위와 Carl Men-ky CHING 회장에게, 그리고 따뜻한 환영해 준 아름다운 홍콩의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국 소식

콜롬비아협회

(Federacion Colombiana de TKD) 97년 8월 총회에서 97년-2001년 임기의 새 집행부 선출
회장-Ivan Dario Valencia P. 서기-Amando Segovia O.
협회주소:Calle 28 No. 25-18, Santafe de Bogota, Colombia 전화/팩스:57 1 287 94 45

몽고협회

(Mongolian TKD Federation/ 회장 Mr. Doripalam Gerel)
주소:Buga toiruu 6, C.P. Box 773, Ulaanbaatar 46, Mongolia
전화: 976 1 326197 팩스: 976 325325/311843

우크라이나협회

(Ukrainian TKD Federation/ 회장 Mr. Igor Petrenko)
전화: 380 0562 785721/785741
팩스: 380 0562 785 731/ 343 890

파라과이협회

(Confederacion Paraguaya de TKD W.T.F.) 전임회장 Mario Martinez Gauto 사임에 따라 97년 7월 21일 총회에서 새 집행부 선출
회장 - Mtro. Miguel Angel Senz (전임 제1부회장)
사무총장 - Prof. Abog. Fabio Oribe Sosa Ortellado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NEWS

슬로베니아협회

(TKD Zveza Slovenije/ 회장 Mr. Rudolf Leban)
주소: Kolodvorska 8, 1000 Ljubljana, Slovenia
전화: 386 61 133 42 80 팩스: 386 61 133 41 23

이스라엘협회

(The Israel TKD Federation/ 회장 Mr. Benzi Almog)
주소: P.O. Box 7657 Jerusalem 91075 Israel
전화: 972 2 6243061
팩스: 972 6243061 (유럽 시간 10:00-15:00동안)

터키협회

Mr. Cengiz Yagiz 터키협회 (Türkiye TKD Federasyonu)
회장으로 재선되었다고 10월 31일자 서신에서 발표.
사무총장은 Bayararam Tiras

네팔협회

네팔 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인 Mr. Rukma Shumsher Rana가 10월 30일 네팔협회(Nepal TKD Association) 회장에 선임. 사무총장은 Mr. Deep Raj Gurung.

아루바협회

(Aruba TKD Association/ 회장 Mr. Jose E. Chaco Comelio)
주소: Madiki 29-C, Aruba (Dutch West Indies)
전화: 297 831427 팩스: 297 827143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KD Association/ 회장 Mr. Pil-Gon RHEE)는 대한민국 문체부의 지원하에 미주 한인 사범 100명을 11월 9일-16일까지 한국에 초청.

세인트 빈센트 앤 더 그레나딘즈협회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KD Association/ 회장 Mr. Brenta Black) 회장과 팬애타권도유니온 박차석회장은 문체부를 방문, 협회 건물 건립에 대해 토의하고 긍정적인 회답을 얻어냈다. 세인트 빈센트 앤 더 그레

나딘즈협회에서는 또한 9월에 박회장을 초청하여 기술 세미나를 개최.

쿠바협회

Mr. Francisco J. Garcia Jimenez가 지난 4월 쿠바협회(Federacion Cubana de TKD) 4년 임기 회장에 재선되었다.

리비아협회

(Libya TKD Federation/ 회장 Mr. Khalifa Mehdawi)
주소: P.O. Box 14732 Tripoli, Libya
전화: 218 21 4448651/ 831668 팩스: 218 21 3601536

새 가입국

5개국 이 세계태권도연맹에 새로 가입. 이로써 홍콩 총회에서 가입 승인된 국가는 총 17개국이 되었다.
5개국 명단과 가입일은 다음과 같다.

■ 짐바브웨 (Zimbabwe TKD Association)

회장: Charles M. Hallmana
주소: c/o IDS- UZ Box 88 Harare, Zimbabwe
전화: 263 4 333341 팩스: 263 4 333345
(1997년 10월 22일)

■ 자마이카 (Jamaica TKD Federation)

회장: Christopher Chok
주소: c/o Mr. Conrod Jenkins 194 Spanish Town Road Kingston 11, Jamaica
전화: 1 876 937 3012-6 팩스: 1 876 937 3321
(1997년 10월 22일)

■ 도미니카 (Dominica TKD Federation)

회장: Asquith Thomas
주소: Pointe Michel, Commonwealth of Dominica
전화: 1 767 449 8671 팩스: 1 809 448 7010
E-mail: doc@tod.dm
(1997년 10월 22일)

■ 바하마 (Bahamas TKD Federation)

회장: Patrick Hanna
주소: P.O. Box CB-12432 Nassau, Bahamas
전화: 1 242 326 7989 팩스: 1 242 327 8523
(1997년 10월 22일)

■ 벨리즈 (Belize TKD Federation)

회장: Larry Kebberty
주소: P.O. Box 1815 Belize City, Belize (C.A.)
전화: 501 2 24091 팩스: 501 2 24094
(1997년 10월 23일)



두목시너

<연재 제11회>

호로아 글·그림

설마 갑자대원이 당하다니...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비의 미간(眉間=두 눈썹 사이)에는 날카로운 세로 주름이 사태의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영상(領相), 그제 진정 사실이요?』

민비의 하문(下問=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은 차라리 한숨같았다.

『네, 정녕 그러하옵니다. 중전마마.』

영의정 민영준은 민비의 심기가 불편할 때 늘 그러하듯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라도에서 봉기한 동학군의 기세가 날로 올라가고 관군이 곳곳에서 깨지고 있다는 소식도 민비의 속을 상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은 불패(不敗=결코 지는 일이 없음)임을 믿었던 갑자대의 대원이 두명이나 지리산패로 보이는 무사에게 살해당했다는 보고였다.

고부봉기를 일으켰던 애물(몹시 속을 태우게 만드는 인물) 전봉준이 순화중, 김개남 등까지 합세시켜 또다시 무장(茂長)에서 들고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민비는 가장 믿고 아끼는 친위부대인 갑자대의 일부를 봉기현장으로 밀파(密派=몰래 파견하는 것)했다.

갑자대 60명 가운데 3분의 1인 20명은 민란의 주동인 물인 전봉준을 암살하기 위해 남의 눈에 띄까봐 훔쳐져 삼삼오오(三三五五=너댓, 또는 대여섯 사람이 무리지어 다님) 짝을 지어 남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명이 천안에서 괴한 단 한명과 맞붙어 싸우다 무적이라 믿었던 갑자대원 두명이 그 괴한의 칼날에 쓰러졌다는 보고는 민비의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영상, 우리 갑자대의 무사들은 일당백(一堂百=한사람이 능히 백사람을 당할만치 매우 용맹함)이 아니요? 그런데 그 갑자대원 세사람이 지리산패로 여겨지는 괴한 단 한사람을 해치우지 못하고 두사람이나 희생됐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구려.』

『.....』

민영준은 할말이 없었다. 하긴 민영준 자신도 처음에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믿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래, 그 지리산패놈은 귀신이란 말이요? 도대체 그런 지리산패가 몇명이나 되요? 또 지리산패의 두령이란 문둥이 복면군사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소?』

민비는 영의정의 뻔한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도 기가막혀 뉘드리처럼 말해보았을 뿐이었다.

『살아남은 대원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도 깊은 상처를 입었으니 아마 바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민비의 두 눈에서 노기(怒氣=노여운 기색)가 섬광처럼 뿜어나왔다.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영상 그걸 말씀이라고 하요? 갑자대원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수칙(守則=지키도록 정해진 규칙) 가운데 하나가 적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생사(生死=삶과 죽음)를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었소?』

민영준의 얼굴빛은 이제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민비로서는 자신과 민씨일족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갑자대가 역도(逆徒=역적의 무리)인 지리산패에게 당했다는 것이 분하고 불안했다.

갑자대원 두명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잃은 살쟁이가 지리산패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무예의 고수(高

手)임을 알 까닭이 없는 민비로서는 지리산패라는 무리가 그저 무시무시하기만했다.

〈그 지리산패라는 녀석들이 무리지어 한양(漢陽=서울)에 쳐올라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갑자대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민비는 심란하기만 했다.

홍계훈을 초토사로 임명하시오

『영상, 이렇게 되고보니 갑자대가 전봉준을 없앨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소. 갑자대만으로 동학란을 진압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소?』

『홍계훈(洪啓薰)을 빨리 임명토록 하시오 그를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해서 민란을 다스리게 하시오』

『네? 홍계훈을 말씀이십니까?』

민영준으로서선 전혀 뜻밖의 하명(下命=내려지는 명령)이 아니었다. 오히려 위급한 경우를 당하면 홍계훈에게 의지하려는 민비의 속마음을 민영준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언제의 일인가? 그렇지, 맞아, 12년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었지〉

민영준은 잠시 지난 일을 돌이켰다.

임오군란 때 민비는 홍계훈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임오년(壬午年=1882년) 여름, 군란(軍亂=군대가 일으키는 난리)이 일어났다. 이 난리를 임오군란이라 부른다.

그해 7월 23일(양력) 무위영(武衛營) 장어영(壯猷營)의 군병들에게 실로 13개월 동안이나 밀렸던 쌀이 지급됐다. 13개월만에 그것도 한달치밖에 안되는 쌀이었으나, 그래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은 없었다.

당시 재래식군대였던 구군(舊軍=구식군대)은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에게 쌀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건주어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은 매우 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모두 민비일족이 나라를 잘못다스리고 우리를 팔시하기 때문이다〉라고 구군의 군병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에 신식군대가 생긴 것은 바로 이해 임오년에 접어들면서였다.

해외에 문호를 개방하는 개국(開國)정책을 택한 왕과 민비일족은 1881년말 일본으로부터 군사교문을 초



청, 명문 양반집의 자제 100명을 뽑아 외평창(外平倉)에서 훈련을 시켰다.

이것이 구군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별기군이다. 별기군의 교련소장은 민비의 조카뻘되는 민영익(閔泳翊)이었고 교관은 일본군 소위 호리모토(堀本禮造)였다.

급여도 매우 높은 별기군이 말쑥한 신식복장으로 일 본식교련을 받는 모습은 늘 구군들을 자괴했고 <왜 같은 군대인데 우리들은 별기군과 달리 이토록 심한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울분으로 가슴을 끓 게 만들었다.

구군들의 이러한 불만은 형편없는 쌀배급이 도화선이 되어 기어이 폭발하고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된다.

임오군란이 터지다 !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한달치란 말이야?!』

도봉소(都奉所)창고 앞에서 쌀을 받아든 구군의 병사들 목소리가 분노로 날카로와졌다.

달아볼 것도 없이 한눈에도 지급받은 쌀의 양은 너무나 모자랐다. 쌀은 양이 모자란 것에 그치지 않고 들과 모래 등이 섞여 있었고 그 쌀마저 변질되어 있었다.

『야! 그나마 쌀의 반은 모래와 돌이 아니냐!』

『이렇게 썩은 쌀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우리가 개 돼지야! 죽일 놈들!』

이런 쌀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병사들과 배급을 강행하려는 창고담당자 사이에 급세 난투가 벌어졌다.

쌀의 양이 모자라고 돌이나 모래 등의 이물이 섞여 있는 것은 병조판서 민경호(閔謙鎬)를 비롯 말단의 창고지기에 이르기까지 쌀배급에 관련된 모든 관원들이 중간에서 쌀을 가로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군병들의 분통이 단숨에 난동으로 나타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민경호는 적반하장(賊反荷杖=도둑이 되려 매를 든다는 뜻) 격으로 난동의 주동인물인 몇사람의 군병을 체포하고 본보기로 사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소란을 강압적으로 짓누르려던 민경호의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동료를 구해내자!』

『우리로 살아야한다! 우리도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쌀을 먹으란 말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가!

동료들을 죽각 풀어주라!』

체포된 동료군병들이 죽게된다는 것을 알게된 나머지 군병들은 무리를 지어 안국동에 있는 민경호의 집으로 몰려갔다.

사형 당하게 된 군병의 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동료 군병들에게 호소한 것을 많은 군병들이 움직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때마침 민경호는 집에 없었다. 그의 집에 밀고 들어간 군병들을 가재집기를 닦치는 대로 때려 부수었다. 중신의 집을 습격해서 때려 부순 군병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 뿐이었다.

일을 저지른 그들은 윤현궁으로 대원군을 찾아갔다. 민비에게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 조용히 지내고 있던 대원군은 그러나 백성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었다.

민씨일가를 차례로 습격 불타는 일본 공사관

대원군은 군병들의 대표 몇사람을 만나 그들을 달래면서도 민씨일족이 펼친 잘못된 정치를 호되게 비판하고 민씨일족들의 중신들을 잡아죽일 것과 일본공사관을 습격할 것의 두가지를 앞으로 그들이 해야할 일로 꼽아주었다.

대원군은 민씨일족을 죽이고 일본공사관을 습격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군란의 대표인 군병들이 물어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알렸을 뿐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군병들에게 대원군의 의견은 하늘의 목소리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여기서 자칫 잘못 물려났다가는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대원군이 군란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의 심복인 김태희(金泰熙)와 허옥(許鶴)이 이미 무장을 갖추고 군병들 지휘에 나섰으니 실제로 군란의 막후 인물들은 대원군이었던 셈이다.

대원군과 반민(反閔) 반일(反日)의 뜻을 함께 하는

군병들의 난리에 이태원과 왕실리의 빈민들이 가세함으로써 임오군란은 정치적 폭동으로 발전한다.

무기고 부수고 본부로

운현궁 앞에서 기세를 올린 군병들을 동별궁(東別宮)을 습격해서 무기고를 깨부수고 그 곳을 본부로 삼은 뒤 종로로 나가 포도청을 습격했다.

쌀배급 때 난동을 부렸다해서 포도청에 잡혀있던 군병들을 풀려났다.

그들은 그 여세를 몰아 의금부(義禁府)마저 습격해서 정치범까지 놓아주었다. 난군(亂軍)의 한무리는 별기군도 기습해서 군사고문이었던 일본군 소위 호리모또를 죽였다.

또다른 한무리는 사동(寺洞)에 있는 이최응(李最應)의 집을 덮쳐 목숨을 빼앗아버렸다.

동생인 대원군 이하응을 배신하고 민씨 일족에 빌붙어 영의정까지 지낸 이최응은 이렇게 죽었다.

민씨일족의 집들도 결코 무사하지 못했다.

세도를 부리던 민씨일족의 집들을 차례차례 습격을 받아 집안에서, 길에서 죽는 자가 잇따랐으나 민검호는 일찌감치 왕궁으로 피신해서 난을 모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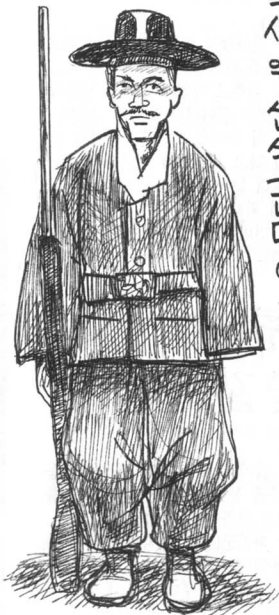
난군의 다른 한무리를 서대문 밖 경기감영의 무기고를 부수고 그 무기로 무장한 뒤 일본공사관으로 달려갔다.

이날 일본공사관에는 하나부사(花房義質)공사를 비롯 28명이 있었으며 외출 중이던 3명은 이미 노상에서 피살됐다.

『호리모또 소위가 이끄는 조선 별기군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 틀린 것 같다. 이제 공사관을 탈출해서 제물포(仁川)로 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빠져나가자.』

하나부사 공사의 지휘에 따라 관원들은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밀려드는 난군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뛰어나갔다.

그들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때마침 큰 짐을 진 피난민들이 무더기로 몰려드는 바람에 그 혼란을 틈타 도망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갑작스러운 난
별기군



민비를 살려낸 홍계훈

돈화문 방면에서 난군들의 함성이 들리자 민비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한다.〉고 민비가 마음먹었을 때 수위부장 홍계훈이 중년인 자기 누이동생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중전마마! 한시가 급하옵니다. 빨리 소장의 누이동생 옷으로 갈아 입으시고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라고 홍계훈은 재촉했다.

민비는 서슴지 않고 재빨리 홍상궁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상궁의 옷차림으로 가마에 탄 민비를 호위하며 흥계훈은 증문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가마 잠깐 쫓겨라!』

별안간 난군의 군병 몇사람이 가마 앞을 가로막고 무지막지하게 가마의 문을 열었다.

민비는 소매로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난군들은 거침없이 민비의 소매를 끌어내려 얼굴을 살폈다.

흥계훈은 『이 사람은 내 누이동생인 홍상궁일세. 피신하려하니 보여주게』라고 당부해서 위기를 벗어난 뒤 민비를 가마에서 내려 등에 업고 궁을 빠져나갔다.

결국 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고종이 대원군에게 전권을 맡기고 있는 사이 민비는 충청도 장호원(長湖院)에 있는 민응식(閔應植)의 집 구석방에서 숨어지냈다.

중전, 급합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고...

민비를 숨기고 있는 것이 탄로날까 봐 밤상도 민응식의 아내가 직접 시중을 들었고 단 한사람의 예외를 빼고는 아무도 민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단 한사람의 예외란 파발꾼(공문을 역참 사이에 나르던 사람)이었던 이용익(李容翊)이었다.

당시의 파발꾼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80리 내지 100리(약 32~40Km) 가량 달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민비의 비밀 파발꾼인 이용익은 하루에 300리(약120Km)를 달렸다.

그는 민비의 편지를 긴 형검에 말아 배에 감고 만일 발각될 경우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서울로 달려가 고종에게 몰래 전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난군의 일본공사관 습격을 트집잡아 배상금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50만엔을 조선정부에게 요구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서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본은 친일파를 배제한 대원군을 몹시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대원군이 서울에 있으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끝내 청나라와도 싸우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한 청나라는 8월 26일 마건충(馬建忠), 정여창(丁汝昌) 등으로 하여금 대원군을 납치해서 자기네 나라 천진(天津)으

로 데려가 1885년 10월까지 3년동안 조선에 돌려보내지 않았다.

민비는 9월11일 청나라 제독 오장경(吳長慶)이 지휘하는 100명의 청나라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이하 대소신료까지 이끌고 장호원의 민응식 집을 떠나 서울로 돌아와 다시 권세를 잡았다.

임오군란의 주동자들을 비롯, 많은 군병과 그 가족들이 조선정부의 의뢰를 받은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 새



출되어 목숨을 잃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비가 궁을 탈출할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흥계훈의 공을 높이 치하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동학란이 일어나 조정과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민비는 또다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흥계훈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 동학군의 토벌을 맡긴 것이다.

황토재에 파놓은 함정

칠월 같은 어둠에 곁들여 밤 안개마저 자욱히 끼어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4월6일 밤, 황토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황토재는 고부와 말목장터의 중간쯤에 위치한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이며 이곳의 흙이 황토이기 때문에 황



지금 황토재에는 동학군 당시의 황토재 전투를 기리기 위해 전직적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토재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날 부안에서 매교(梅橋)로 나가 관군과 맞부딪친 동학군은 두역시니가 미리 전봉준에게 건책(建策=방책을 세워 건의함)한 대로 한동안 싸우는 척하다가 짐짓 패주(敗走=져서 달아남)하는 것처럼 몰려나 관군을 도고산, 그리고 황토재까지 유인했다.

관군들은 별로 싸움다운 싸움도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동학군을 업수이 여기고 신나게 추격했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밤 안개까지 끼자 관군은 소나무를 쪼개서 모닥불을 피워 사방을 내달처럼 밝히며 경계를 펼친 가운데 휴식을 취하고 저녁밥을 지어먹었다.

분명 가까이 있을 곳으로 짐작되는 동학군 진영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아 조용하다 못해 무시무시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관군이 피워 놓은 모닥불은 오히려 동학군이 관군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꼴이 됐다.

동학군은 바로 가까이에 조용히 잠복하고 있었다. 동학군의 정찰병은 관군의 움직임을 쉴새없이 알려 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전봉준은 군사(軍師)인 두역시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군사, 어떻게? 저녁밥을 먹고 난 모양이니 공격령을 내리는 것이...』

『장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곧 그들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지쳐서 잠들 것입니다.』

두역시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봉준에게 공격을 서두르지 말도록 건의했다.

얼마 안되어 관군진영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정찰병은 그들이 춤까지 추며 놀고 있다고 전해 왔다. 그리고 한참 뒤 관군 진영은 차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두역시니의 말대로 지쳐서 잠든 것이다.

『장군! 바로 지금입니다.』

두역시니의 말을 듣고 전봉준이 어둠 속에서 흰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았다.

『전군, 공격 개시!』

전봉준의 오른손이 올라가자 『평!』하는 우렁찬 폭발음과 함께 붉은 불꽃이 안개를 뚫고 밤하늘로 치솟았다.

이 공격 신호에 맞추어 동학군은 일제히 총을 쏘며 관군 진영으로 쇄도했다.

『탕! 탕!』

콩 볶는 듯한 총소리에 잠들었던 관군은 기겁을 하며 일어났으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악!』

『사... 사람 살려!』

비명 소리와 총소리가 뒤범벅이 된 가운데 관군은 힘을 합쳐 대항할 생각은 않고 그저 저마다 살길을 찾아 도망가기에 바빴다. 이윽고 날이 밝자 관군을 추격하는 동학군은, 관에 의해 거의 강제로 징집당한 옷 입은 향병(鄕兵)은 해치지 않고 검은 옷을 입은

영병(營兵)과 등에 붉은 도장이 찍힌 보부상군만을 끝까지 쫓아가 잡아 죽였다.

두역시니의 밀명에 따라 무장(茂長)의 보부상으로 가장해 관군에 스며들어 그들을 황토재까지 유인했던 동학군은 이미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관군의 무리에서 빠져나가 동학군에 합류해 있었다.

계절은 4월이라 언덕 아래 논에는 봄갈이를 마치고 물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허겁지겁 도망가던 영병과 보부상들은 진흙탕에 빠져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에 추격해 온 동학군의 칼과 창을 피할 수가 없었다.

어떤 명분이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끔찍한 것이다. 관군이 흘린 피로 눈물은 붉게 물들었고 영병과 보부상들의 시체는 논두렁 여기저기에 즐비했다.

관군의 영관(領官)인 이경호(李景鎬)도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관군은 황토재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었으며 비로소 동학군에게 공포감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못 갈 거야

일본의 기쿠찌(菊池謙讓)가 지은 「근대 조선사」라는 책에는 당시 관군의 한사람으로 참전했던 보부상의 회고담이 실려 있다.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4월6일 아침, 우리(관군)의 군부를 떠나 징집된 마을사람과 함께 고생스럽게 군량을 운반했다. 비가 온 뒤라 수레와 짐을 실은 말의 행진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큰 짐만 쟁쟁 등에 지고 진군했다. 길은 좁고 비탈길은 고르지 않았지만 군사들은 매우 원기왕성하여 노래를 부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군했다. 여러 차례 쉬면서 저녁 때에 황토재에 이르렀다. 곧바로 짐을 풀고 작고 큰 여러 개의 진지 구축을 마친 뒤 밥을 지어먹었다. 모두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으며 장교 한명과 열명 남짓의 군병이 마련해 온 쇠고기와 술을 먹고 마시면서 모두가 원기를 회복했다.

우리들은 「미련한 동학군은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계곡의 물로만 배를 채워 당장 내일은 길을 기운도 없을 것이다」고 비웃었다. 이런 장난 같은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날밤 처음에는 경계를 세웠다. 그러나 동학군의 진영이 완전히 고요한 데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안심하고 그 뒤부터는 술을 더 마시고 취해서 노래부르고 춤추다가 깊이 잠들고 말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적이 급격해 온다는 커다란 고함 소리에 잠이 깼다.

이리저리 도망하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숨는 사람 등으로 법석이었고 이미 진영의 둘레에는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약 200명 가량의 관군 가운데 무기를 들고 동학군에게 맞선 사람은 매우 적었고 나머지는 앉아서 칼을 맞거나 자다가 죽는 등 그 패배의 모습은 참혹했다.

나는 황토재 북쪽 소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겨우 지름길을 더듬으며 백산 서쪽 해안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아산 쪽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도망간 자들은 동학군의 별동대에게 습격당했고, 또 곳곳에 작은 셋방이 있어서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7일 동이 뜨기 전에 관군은 대개가 살해됐으며 이 싸



움에서 나의 동료인 보부상은 70~8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관군은 다수의 무기(무기)를 버렸고 쌀 100석 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황토재 전투다.

논두렁에 즐비한 관군의 시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무기는 한마디로 관군의 참패를 말해 주고 있었다.

애마 폭룡을 타고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두억시니는 곁에 있는 수하 쪽제비에게 무거운 말투 로 내뱉었다.

『쪽제비! 자네나 나나 죽어서 천당 가기는 틀렸네.』

때마침 들레에는 심복인 쪽제비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심코 흘러나온 말일게다.

〈군사는 지금 적군의 처참한 죽음 앞에 허무함과 비애를 느끼고 계시구나〉라고 쪽제비는 직감했다.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군사(軍師)의 입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을 망설이는 듯한 말이 나와서는 안될 노릇 이었다.

그러나 쪽제비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그의 두령 두억시니가 때로 매우 인간다운 약한 면을 보이는 것 이 무척 좋았다.

〈차가운 겉과 따뜻한 속을 지닌 두령의 사람됨에 끌려 나는 이 분에게 목숨까지 바치고 있나 보다〉고 쪽제비가 느낀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두령.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못 가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들을 안 죽이면 동학군에 참가한 백성들이 죽습니다.』

쪽제비가 오히려 두억시니를 달래듯 말했다.

“차가운 겉과 따뜻한 속” 이분에게 내 목숨까지...

『그건 그래.』

두억시니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 버리려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 살육이 뒷날 또다시 참혹한 복수를 불러 일으키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

이번에는 쪽제비가 할 말을 잃었다.

아닌게 아니라 동학군의 거사가 끝까지 성공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만약 동학군이 관군에게 밀려 패주(敗走)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 참극의 몇 곱이나 되는 피투성이 복수극이 펼쳐질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리고 두억시니의 이 불길한 예감은 뒷날 불행히도 현실이 되고 만다.

『하하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일지도 모르지.』

두억시니는 공허한 웃음을 웃고는 말머리를 동학군 진영으로 돌렸고 그 뒤를 쪽제비가 따랐다.

〈다음호에〉



태권도 산책



홍 종 수

태권도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기원 부원장
전 대한 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불세출의 영웅 광개토 영락대제

98년은 호랑이 해다. 백수의 왕은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새해는 우리 태권도계가 웅비(雄飛)하는 해로 삼아야겠다. 웅비의 웅(雄)은 수웅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나이를 뜻한다.

뛰어난 사나이는 영웅(英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웅(雄)은 사나이다움을 표현할 때에도 쓰이고 있다.

호랑이 해를 맞아 우리 민족이 놓은 위대한 영웅을 생각해 본다.

동북아시아의 걸출한 영웅으로서 중국의 요동과 요서 만주벌판을 석권하고 만리장성을 넘나들며 영토를 확장해나간 고구려 19대 광개토 영락대제(廣開土 永樂大帝)를 기리며 새해 첫머리에는 태권도인들이 힘찬 나라, 힘찬 태권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야겠다.

광개토 대제가 391년에 즉위하면서 손을 댄 첫번째 일이 연호(年號)를 영락(永樂)으로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연호는 약소국 아닌 크고 강한 나라의 황제가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호를 정한 것은 나라 안팎에 고구려가 황제의 나라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광개토 대제는 그저 영토확장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탁월한 군략가이자 큰 정치가로서 용맹과 지모(智謀)가 매우 뛰어난 영주(英主)였다.

당시 고구려는 한족(漢族)을 비롯해 선비, 말갈, 숙진 등 많은 적대세력에 둘러싸여 있었고 남쪽으로는 백제, 신라 등과 맞서 있었으며 왜(倭=일본)와도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광개토 대제는 약관 18살에 즉위하자마자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부족을 하나로 묶어 대정복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필자는 95년 봄 어느 신문사에서 사적(史蹟) 탐방단의 한사람으로 백두산과 압록강 일대를 살핀 일이 있다.

그때 거대한 광개토대왕 비를 보았을 때의 흥분과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높이 630m, 무게 37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자연석에 새긴 비문은 2000자에 이른다.

1500년이나 지난 오늘에도 비석은 곳곳이 서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군헌(軍憲)의 손에 의해 고의로 많은 글자가 파손, 마멸, 또는 변조되어 있다는 점이 다.

광개토 대제의 일생은 마케도니아의 영웅이며 세계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알렉산더 대제와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다.

거창한 업적에 너무나 짧은 생애가 특히 그렇다. 만약 광개토 대제가 20년만 더 살았더라면 동양의



▲고구려의 광개토 대제는 동북아시아의 패자(覇者)로서 기해 백수의 왕 호랑이와 견줄 만한 인물이었다.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쉽기만 하다.

대제는 단군 이래 가장 넓은 강토를 이민족으로부터 되찾은 인물이다.

즉위한 391년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대제는 백제의 영역인 석현(石峴) 외 10여개의 성을 공격해 빼앗고 군사상 요충인 관미성을 점령한 뒤 몸소 수군(水軍)을 이끌고 서해안을 공략해 18개 성과 한강연안의 여러 진(鎭=한 지역을 지키는 군대의 직소)을 점령, 백제의 도성에 육박함으로써 백제로 하여금貢物(貢物)을 바치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대제는 왕제(王弟) 대신 이하 10여명을 인질로 잡



◀고구려의 전사
삼십층에 있는 벽화다. 두명의 무사가
검뿔을 입고 있으며, 말은 안장을 걸
치고 있다.

고 개선했다.

대제는 이 정토(征討)에서 58개 성읍(城邑)과 700여 촌락을 공략해 개트렸으며 또한 서북방의 몽고지역도 쳐서 굴복하게 만들었고 송화강(松花江) 유역을 공파(攻破)하는 한편, 숙진을 정복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패자(覇者)로서의 위치를 다졌다.

402년에는 연(燕)나라를 공격해서 신성(新城), 남소성(南蘇城) 등을 들이치고 요하(遼河)를 건너 숙군성(宿軍城)을 점령해 요하로부터 동쪽으로 땅을 차

18살에 즉위 단군에게 가장 넓은 강토

지함으로써 옛 조선의 강토를 수복했다. 이로써 고구려는 아시아 동부의 신흥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대제는 백제, 신라를 덮어놓고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왜의 침략에 시달리자 신라를 도와 왜를 징벌하기도 했다.

400년 신라가 구원을 청해오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백제, 가야, 왜의 연합군을 크게 개트림으로써 신라를 위기로부터 구출해 냈다.

요동지역과 남방을 석권하고 동부(東扶餘=북만주)까지 공략해서 평정하니 귀순 또는 투항하는 부족이 줄을 이었다 한다.

대제가 동북아 대륙에서 펼친 대정복을 돌이켜보면 마치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활약 못지않은 웅대한 활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재위 22년에 엄청난 업적을 이룩한 대제는 아깝게도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앞에서 필자가 '광개토대제의 수명이 20년만 더 길

었더라면 동양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워한 것은 대제가 이룩한 영토확장이 보다 제대로 굳건한 뿌리를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을 한탄하는 것이다.

만약 광개토 대제가 이룩해 놓은 넓은 영토를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좁은 한반도만이 아니고 중국과 만주에 걸친 광대한 강토를 지닌 큰 국가로서 감히 어느 나라도 넘나보지 못하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아무튼 우리는, 특히 태권도인들은 대민족국가를 건설코자 남정북벌(南征北伐)에 쫓지만 빛나는 일생을 바친 우리의 영웅 광개토 대제의 유덕(遺德=죽은 이가 끼친 덕)을 기리며 그가 품었던 큰 웅지(雄志=웅대한 뜻)를 본받아 세제로 뽐어나야겠다.

광개토 대제의 아들 장수제(長壽帝)는 아버지보다 60살이나 더 살면서 아버지가 이룩한 업적을 계승하여 좋은 정치를 펼쳤다.

그는 부제(父帝)의 업적을 기려 통구(通溝)벌에 동양 최대의 능비(陵碑)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광개토 대제비(廣開土大帝碑)다.



◀광개토 대제비
압록강 중류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 대제비는 414년 왕자인 장수제가 세웠다. 높이가 6.6미터나 되는 이 큰 비는 1882년 땅 속에서 발굴되었다. 비에는 왕가의 유래가 명기되었고 대제의 공적을 찬양하는 동시에 45세기 경의 백제, 신라로의 대정복, 일본군의 격파, 영역의 확대 등이 적혀 있어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되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2월호의 68페이지 '태권도 산책'란의 4번짜리에 실린 동방이화(東方異聞)이란 단어의 '화'를 '마'를 리를 '화' '다스'릴 리로 바로 잡습니다.

교열 잘못으로 폐를 끼친 필자와 독자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챔피언의

특기

좀 봅시다



▲세계선수권 2연패.
김철호 (31, 삼성물산 코치)

김철호의 특기 공개

주먹반격에 이은 연결 발차기 · 뒷발 받아차기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김철호의 특기를 조망기로 한다.

김철호는 장신을 이용한 장거리 받아차기와 주먹 반격에 이은 얼굴발차기가 매우 능했다.

이것은 과거 동성 고등학교 코치이던 김세혁

(삼성물산 태권도팀 감독)씨의 제자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기술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번 호에는 그의 주먹 반격에 이은 연결 발차기 2가지와 고급 기술인 뒷발 받아차기(속칭 밀봉차기)를 분석하기로 한다. (편집실)

기술개요

1. 왼손 앞주먹 걸고(=반격)

왼발 앞발 제자리 앞돌려차기

이 기술은 왼발 앞발 밀어 옆차기 혹은 왼발 앞발 발붙여차기 등, 기타 왼발 앞발 선제 공격을 한 후 상대가 왼발(혹은 오른발) 앞발 제자리 받아차기로 대응할 때 공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기술은 11월호에 나간 바와 같다.

이번 호의 기술은 거의 같은 동작인데 반격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를 다룬 것이다.

특히 이를 별도로 다룬 것은 공격 때와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스텝(보법)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공격 시에는 왼발 공격을 한 후 상대의 반격을 주먹 기술로 차단하며 이때 생기는 순간적인 정지 상태를

이용해 발차기공격을 가하는 반면, 반격인 이번 기술의 경우는 상대의 왼발 공격을 15°에서 20° 가량 전방 좌측으로 비스듬히 피하는 고도의 스텝을 이용해 주먹 반격을 가한 후 발차기 공격으로 바로 연결하는 동작이다.

15°~20° 가량 전방 좌측으로 나가는 이유는 상대의 왼발 공격이 얼굴을 노릴 경우 바로 피하기 위해서이다.

2. 오른손 뒷주먹 걸고(=반격)

오른발 얼굴 앞돌려차기

이 기술 역시 왼발 앞발을 공격했을 때 반격해 오는 상대의 발차기를 주먹 기술로 차단하면서 바로 뒷발

얼굴앞돌려차기를 가할 수도 있는 기술이다.

반면, 제자리에서 반격의 형태로 사용하는 이번 기술은 사실 매우 위험한 면이 있다. 그것은 1번 기술이 전방 좌측으로 15°~20° 가량으로 이동하면서 반격하여, 상대가 예기치 않게(혹은 최초 판단했던 것과 달리) 얼굴을 공격해 올 때 곧바로 피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기술은 그 같은 회피 스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상대의 얼굴 공격을 몸통 공격으로 착각하여 주먹 반격을 하는 경우 얼굴은 그대로 맞는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제자리에서 바로 안정된 상태로 주먹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격이 성공할 경우 큰 충격을 상대에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혹, 뒷 주먹 단일 공격이 정확히 적중하여 K.O 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기술은 3번 기술과 전법상

연계되어 사용될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3 상대의 뒷발 공격에 대한 뒷발 받아차기 (속칭 밀 발등 받아차기, 밀봉차기)

이 기술은 2번 기술과 전법상 연계되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즉, 일단 상대방이 뒷발 몸통앞돌려차기 공격을 할 경우 2번 기술인 오른손 뒷주먹 반격을 하여, 다음번 공격서는 상대방이 얼굴 돌려차기 공격을 하도록 유도해 내어, 실제로 얼굴 앞돌려차기 공격을 해 올 경우 바로 상체를 뒤로 눕히며 밀발등 받아차기를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상당히 고급 기술로 외국 선수들에는 최근에야 보급되기 시작했다.

● 왼손 앞주먹 걸고(=반격) 왼발 앞발 제자리 앞돌려차기



1.

준비 자세
엷폼(엷서기)으로 마주보고 서 있다.
(오른쪽이 김철호)

2.

상대가 왼발 앞발 발볼여차기로 공격을 해 온다.



챔피언의 특기



4.

상대가 왼손 앞주먹 공격의 충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왼발 앞발로 상대의 명치를 공격한다.
허리를 틀고 때리는 것이 물론 중요하며, 앞 주먹반격과
거의 동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빨리 차야 효과적이다.

3.

상대의 왼발 발볼여차기를 왼손 앞주먹공격으로
반격하는 김철호
2번 사진과 비교하여 보면 김철호의 왼발이 전방 좌측
전진 스텝으로 15°~20° 가량 움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스텝의 목적은 만약 상대의 왼발 공격이 몸통이 아닌
얼굴일 경우 이를 첫 동작에 분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미리 약간 빠져 줌으로 안전하게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오른손 뒷주먹 걸고(=반격) 오른발 얼굴 앞돌려차기



2.

주먹 반격

상대의 오른발 뒷발 몸통 앞돌려차기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른손 뒷주먹으로 상대의
가슴을 반격(막기동작과 주먹 공격을 동시에 행한다).

이 경우 상대가 몸통이 아닌 얼굴을 찰 경우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쏠린 상태에서 얼굴을 맞게 되어, 큰 충격을
입게 되는 약점이 있는 기술이다.

1.

준비 자세

오른쪽의 김철호는 반격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3.

뒷발 얼굴앞돌려차기 연결 공격 주먹반격으로 생긴 순간적인 정지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의 얼굴에 뒷발 앞돌려차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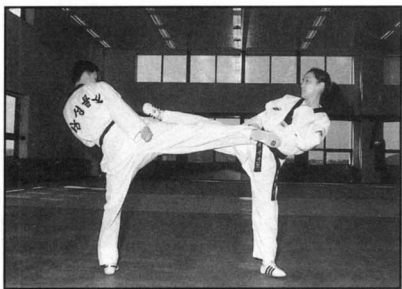


● 상대의 뒷발 공격에 대한 뒷발 받아차기



2.

상대가 얼굴을 뒷발 앞돌려차기로 공격하기 위해 뒷발을 들자마자 김철호는 오른발 받아차기를 시작한다. 상대의 공격을 최초로 인식한 순간에 바로 받아 차는 '타이밍 포착'이 가장 중요하다(뒷발이 들리는 순간이 최적)



1.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 짓기(=페인팅, 모션)동작을 하는 김철호(왼쪽). 앞발을 반스텝 정도 앞으로 주어 공격하려는 듯한 의도를 보이거나, 또는 오른손 뒷주먹으로 반격하려는 듯한 의도를 보이는 예비 동작이다. 이 경우 2번의 기술에 의해 상대가 오른손 뒷주먹으로 반격을 당한 직후이거나, 또는 2번 기술을 상대가 인식하는 경우, 상대는 2번 기술의 약점인 얼굴 공격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



3.

상대의 얼굴 앞돌려차기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김철호는 앞발을 뒤로 약간 빼면서, 상체는 뒤로 높이고 차는 받아차기를 시도하여 성공했다. 장신이면서 빠른 선수가 유리하다. 2번 기술과 번갈아 사용할 경우 상대의 얼굴 공격을 끌어낼 수 있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도: 박 영 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게임 2위
하얏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가원 심사위원)

복부 근육은 상복부근, 하복부근, 외복사근, 내복사근과 갈비뼈에 붙어 있는 전거근으로 이루어져 내장 기관과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거의 모든 복부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복부 근육 운동의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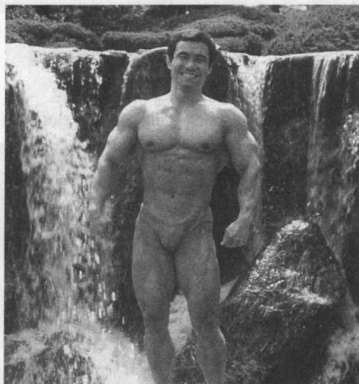
복부 운동 분석, 주운동 프로그램 짜도록

복부 근육 운동은 위, 아래와 양 옆부분을 골고루 자극해야만 한다.

한 두 가지의 복부 운동 만으로 복부 각 부분의 충분한 자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시하는 복부 운동을 분석해서 주 운동 부분을 점검한 다음, 그에 맞춰 운동 프로그램을 짜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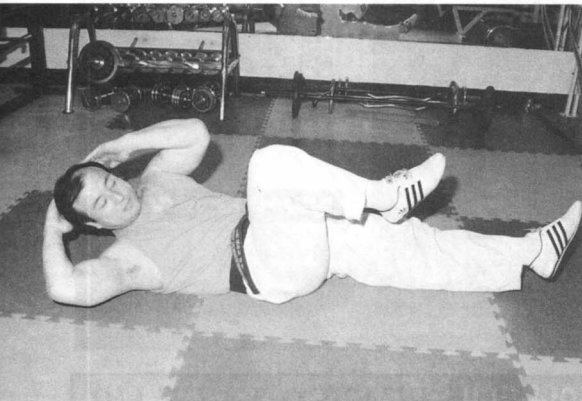
즉 상복부근, 하복부근,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을 자극할 수 있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운동으로서 복부 근육을 충분히 자극시키도록 한다.

▶미스터 아시아 타이틀을 3차례(82년, 86년, 88년)나 차지한 박영철 부장의 전성기 때 몸모습. 우람한 근육은 강한 파워를 약속해 준다.



복부 트위스터

ABDOMINAL - TWISTER



호흡

자연스럽게 실시하며 숨을 너무 오래 멈추는 것은 내부 압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하다.

반복 횟수

복부 근육의 최대 자극을 위해서는 복부 근육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실시한다.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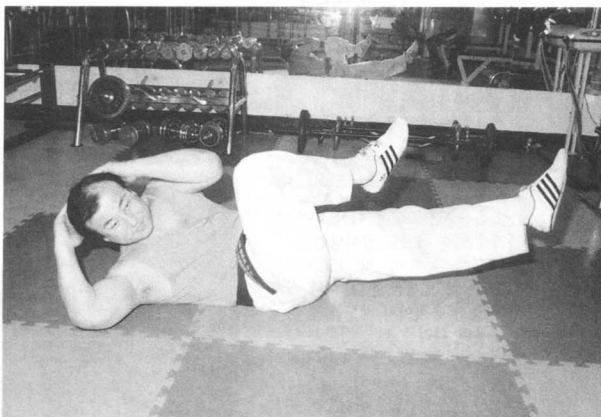
1. 동작이 부드럽게 율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2. 상체와 하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상체를 고정시키고 다리만을 교대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한 다음, 숙달이 되면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3.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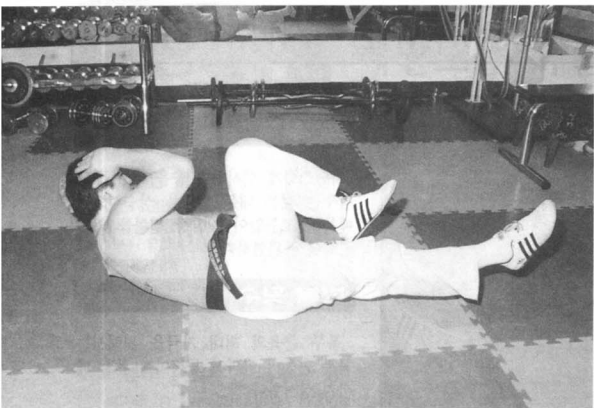
자세

1. 바닥이나 매트에 등을 대고서 눕는다.
2. 두손으로 머리를 지탱하고 한쪽 다리는 곧게 펴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오게 한다.

동작

1. 왼쪽 무릎을 구부려 오른쪽 가슴으로 무릎이 오게끔 하는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을 향해서 갖다 댄다.
2. 구부렸던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를 똑바로 바닥에 눕히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왼쪽 가슴에 오른쪽 무릎이 오게끔 하는 동시에 상체를 구부려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이 닿게끔 한다.
3. 위 동작을 연속적으로 반복한다.





발달근육군

- 복직근(상, 하)
- 외복사근
- 내복사근
- 전거근

발달시키는 동작

- 킁이나 펀치력의 스피드 증진, 파워력 강화
- 상체와 하체와의 조정력 강화

벤치에 앉아서 무릎 들어올리기

SEATED KNEE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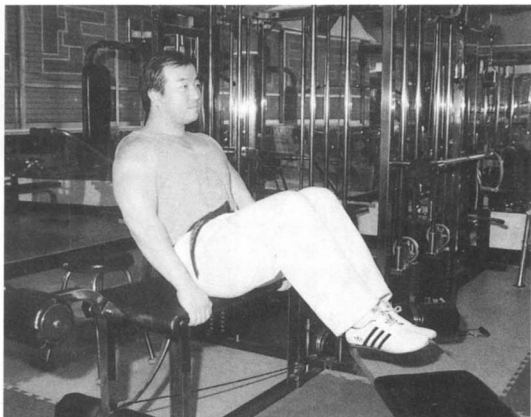
자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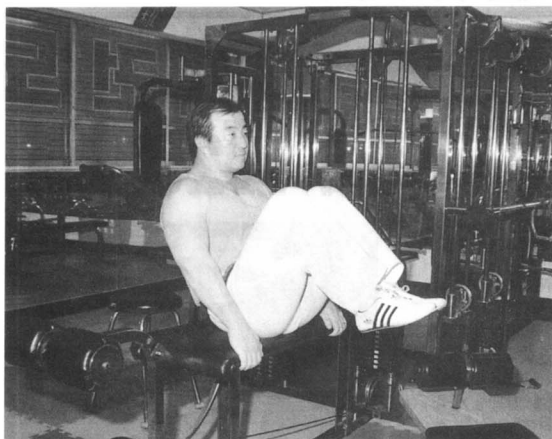
1. 벤치 끝에 사진과 같이 앉아서 두손은 벤치 가장자리를 잡는다.
2. 이때 상체는 약 45도 정도 뒤쪽으로 기울인다.
3. 두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려 두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린다.
4. 시선은 정면을 응시한다.

동 작

1. 호흡을 조금 들어 마신 다음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다.
2. 가슴에 무릎이 약 15Cm에서 30Cm 정도 오게끔 한다. 이때 상체가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구부린 다리를 45도 정도 아래로 뻗으면서 두손으로 벤치를 잡고서 상체의 자세를 유지한다.
4. 이때 입으로 숨을 내쉬고서 다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끌어 당기기 전 다시 코로 짧게 숨을 들어 마신다.





발달 근육

- 하복부근
- 상복부근
- 외복사근
- 내복사근
- 대퇴사두근

발달시키는 동작

- 킥 동작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의 스피드 강화
- 킥을 하고 난 다음 다리를 원 위치로 되돌아갈 때의 스피드 강화

용용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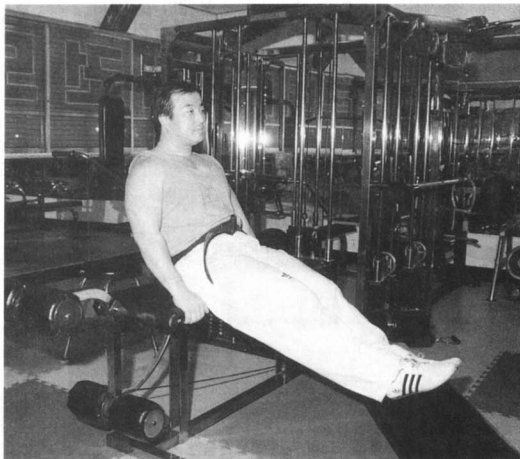
초보자의 경우는 벤치에 가로로 앉기보다는 세로로 앉아서 두팔을 뒤로 뻗어 멀리 벤치 끝을 두 손으로 잡아야 상체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다.

주의점

1. 상체가 지나치게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다리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한다.
2. 무릎을 펴고서 동작을 실시하면 아랫허리에 더 많은 자극을 주게 되므로, 항상 조금은 구부러져 있도록 한다.
3. 등을 항상 조금은 둥글게 하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이며 복부 근육에 수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용용 동작

두팔을 붙여서 실시하는 대신에 두팔을 교대로 뻗으면서 실시하면 상체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고 운동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복부 근육의 긴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검도 KENDO

일본장도(杖道) 대회에 442명 출전

개최지 가나가와세가 3개부문 석권

검도는 알겠는데 장도(杖道)란 도대체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 막대기를 휘두르는 무도 스포츠다.

일본에서는 이 장도가 따로 경기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일본검도연맹에서 관장하고 있다.

장도의 매력으로는 막대기 한 개 있으면 곧 시작할 수 있는 데다 온몸운동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장도에는 검도나 유도처럼 단이 있어 지금까지 초단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16900명 남짓이라니 장도 인구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치 많은 편이다.

장도대회에서는 여성들이 6단, 7단의 고단위부에서도 우승자가 즐비할 정도로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97년에는 10월 5일 도쿄의 에도가와구 스포츠센터에서 제24회 전일본장도대회가 열려 442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는 4개부문 가운데 3개부문을 지난 대회



▲ 검도단체결승 대장전에서 미쯔비시상사의 다나카(오른쪽)가 도쿄해상보험의 가네코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

개최지인 가나가와(神奈川県)세가 우승을 차지했다.

장도 보급은 아직 일본 전국에 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나가와,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히로시마 등지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나가노(長野)세다. 나가노세는 요즘 들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좋은 성적을 올려 주목을 끌고 있다.

검도 단체전에 107팀 출전 전국 미쯔비시 무도대회

일본에는 기업그룹이 여는 전국무도대회가 있다. 그 가운데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미쯔비시그룹의 전국미쯔비시무도대회는 97년에 제41회 대회를 열었을 만치 전통, 그리고 권위까지 자랑하고 있다.

97년 9월 20일 도쿄의 일본무도관에서 치러진 전국미쯔비시무도대회에는 기린맥주, 니콘, 미쯔비시자동차 등 30여개 회사가 참가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경기종목은 검도, 유도, 가라데 등이 단체전으로 치러졌으며 궁도는 따로 날을 정해, 역시 단체전이 개최됐다.

검도 단체전에는 107개팀이 출전했다니 가히 이 대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97 전일본 장도대회 7단부에서 우승한 가미노소노(남)고즈카(여).

유도 JUDO

일본은 전통에만 집착하지마라

유도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의 아사히신문(97년 11월 25일자)은 일본이 반대하던 컬러유도복을 채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한 박용성 UF(국제유도연맹)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간추려 보기로 한다.

—파리에서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승패 판정의 오심이 눈에 띄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심을 저지르는 심판은 큰 대회에서의 경험이 모자라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심판강습회를 늘리고 싶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의 경험도 쌓게 하고 싶다」

—컬러유도복 도입에 일본은 반대했으나 유도의 국제적인 발전을 위해 일본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일본이 유도의 강국이고 세계의 유도지도자임에 틀림은 없다. 그러나 최근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컬러유도복에 반대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유도계에서 채용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갖가지 제도에 일본은 반대해 왔다.

유도계라는 배의 성장으로서 반대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전통에 집착하지 말고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주었으면 싶다」

—산뜻한 한판승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현재 대회 때마다 한판으로 판가름나는 경기는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파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경기의 반가량이 한판으로 결정났다. 정보 부족이나 상호의 오해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생겨난 것 같다」

—경기 시간을 현재의 5분으로부터 4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5분으로서는 선수에게 부담도 되고, 보는 쪽도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심판위원회에서 나왔을 뿐이다. 아직 연맹으로서의 정식으로 논의나 결정을 내린 바 없다.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경기가 보다 활기차고 스피드하게 진행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절반」 「효유」 등에 점수(포인트)를 두어 쌓인 점

수가 만점인 「한판」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승패를 가리는 포인트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도의 스코어보드는 매우 복잡하고 관중들이 알기 어렵다. 보는 쪽에도 알기 쉽게 간단히 한두어 몇가지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다. 현재 심판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나로서는 도입해도 좋고 안해도 좋지만 유도는 세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보아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데에는 찬성이다」



▲「유도의 스코어보드는 매우 복잡하고 관중들이 알기 어렵다」고 말하는 박용성 국제유도연맹회장.

금메달리스트의 산실 프랑스선수촌

일본의 유도전문월간지인 「근대유도」(97년 12월호)는 '97파리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4, 은3, 동2로 종합 2위를 차지한 프랑스유도가 어떻게 그토록 강해졌는가를 살피기 위해 특집을 꾸민 가운데 프랑스의 국가대표선수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셉(INSEP)을 소개했다. 간추려 본다.

인셉(INSEP)은 INSTITUT NATIONAL DU SPORT ET DE L'EDUCATION PHYSIQUE의 약자다.

국립스포츠, 체육연구소라고나 할까?

인셉은 파리 남동쪽, 그러니까 파리의 중심부에서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자동차로 30~40분 거리의 반센스수풀에 자리잡고 있다. 34만㎡라는 넓은 인센의 대지도 꼭 들어갈 만치 반센스수풀은 크다.

인센은 국립시설이니만치 마음대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센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정상수준의 스포츠 선수의 트레이닝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학교체육지도자를 제대로 키워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경기의 수준 높은 코칭스태프를 양성하는 것」이다.

대지 내에는 옥내외의 육상경기장, 축구그라운드, 다목적체육관, 럭비그라운드, 테니스코트, 격투기체육관

다. 거의가 하계. 동계 올림픽종목이지만 럭비나 검도 같은 종목도 있다.

종목에 따라 선수의 수효가 달라 적게는 20~25명가량이고 유망 종목인 유도, 태권도의 경우는 늘 150명 정도나 된다.

인센에서 선수들의 하루일과는 다음과 같다.

▲오전 8시~10시30분=수업, 10시30분~12시30분=트레이닝 ▲오후 2시~4시30분=수업, 4시30분~8시30분=트레이닝

여기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살펴보자.

의무교육은 7살부터 17살까지의 10년이다.

10살까지는 초등 학교, 11살부터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바카로레아 시험(고교 졸업시험)을 보아서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에의 진학률은 약30% 따라서 바카로레아 자격을 지닌 사람은 프랑스에서는 꽤 엘리트인 셈이다.

인센에는 15살부터 35살까지 폭넓은 선수층이 들어간다.

고교생들은 이곳에서 일반학교와 다른없는 수준의 수업을 받는다.

그 뒤에는 어느 대학에 진학해도 좋고 체육교사, 지도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인센에 남아도 된다.

선수들에게는 숙박 식사가 완전히 보장되고 학비도 보조해 준다. 우수선수에게는 특별히 강화비까지 지급된다.

스포츠선수로서는 더 바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원형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아직 근대스포츠가 확립되기 이전 스포츠(체육)는 주로 군인들의 신체훈련으로서 치러지고 있었다.



▲ 프랑스의 「태권선수촌」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근교의 인센(INSEP=국립스포츠 체육연구소)의 전경.

등 충실한 경기 시설은 물론 숙박 시설, 학교, 과학 연구소, 병원, 도서관, 기록자료관, 웨이트트레이닝장, 마사지실, 사우나 그리고 식당, 카페, 책방, 놀이방까지 완비되어 있다.

이 정비된 환경에 프랑스정부로부터 물려드는 스포츠 엘리트는 늘 1,000명가량이며 그 가운데 반수가 아예 인센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밖에도 주말에는 지방에서 많은 선수들이 강화합숙을 갖기 위해 올라온다.

또 각국의 대표팀이나 스포츠클럽, 학교와의 합동훈련, 국제 교류도 활발하다.

이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는 35개 종목에 이른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아모르레령이 창설한 그리넬군대. 시민체육관에 1852년 체육교원양성학원인 주앙빌학교가 설립됐다.

이 학교는 유명한 정치가 크레망소의 추진 아래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1933년에는 체육의 상급학교도 세워졌다. 주앙빌은 뒷날 군대와 민간의 대표팀을 훈련시키는 국립시설이 됐으나 1940년에 폐쇄되고 1943년에 일반교육의 국립시설로 탈바꿈했다.

1946년 스포츠진흥의 사명을 이어받는 모양으로 체육상급학교인 (ENSEP=국립스포츠연구소)가 두군데 설립됐다.

1970년에는 두 개의 ENSEP가 신설인 「체육과 스포츠의 상급학교」에 병합됐다.

1975년에는 법에 의해 앞에 나온 여러 시설의 연합체로부터 오늘의 인셉이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여러 시설이 인셉으로 정비된 것은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프랑스의 성적 부진에 대한 당시의 드골 대통령의 대책 호소로 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국위 선양이 직결되는 스포츠 진흥 추진이 그 바탕이 되고 있던 다.

국립인 인셉은 스포츠성(省)에 소속하고 있다.

원래 프랑스도 스포츠와 체육은 교육성이 관장하고 있었으나 2차대전 후 교육성으로부터 스포츠성이 독립됐다.

20세기초부터 서서히 뚜렷이 시작한 「스포츠교육」의 사상이 발전해서 조직화된 것이 인셉이라 보면 된다.

인셉에서는 500명 가량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모두가 공무원이다. 단지지도자 가운데는 각 경기단체로부터 파견된 사람도 있다.

시설의 관리비, 유지비는 연간 4000만 프랑(약90억원), 인건비는 3200만 프랑(약72억원)이며 모두 국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인셉의 총괄 책임자인 미셀 쇼보는 인셉에서의 유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유도는 인셉의 기둥이 되는 스포츠다. 유도연맹은 인셉을 중요시하고 최고기관으로 인정해 정상급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보내 주고 있다. 현재 유도연맹은 새로운 트레이닝시설을 건설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더라도 지금까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셉의 시설과 기능을 안내하는 책자.

가라데 KARATE

가즈미 극진가라데 일본선수권 2연패

제29회 오픈토너먼트 전일본가라데 선수권
우승 3차례, 결승 진출 6차례

재일동포 고(故) 최영의 관장이 창설한 극진가라데는 그의 사망후 가지가 몇 갈래로 갈려 서로 자기네가 정통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영의 관장의 유언에 따라 극진회관의 통수권을 이어받은 재일동포 문장규(文章圭)가 이끄는 극진가라데가 일반적으로 정통파로 인정받고 있다. 그 문장규파의 극진가라데가 지난 11월12일 이들 동안도쿄체육관에서 제29회오픈토너먼트 전일본가라데 선

수권대회를 열어 가즈미(敬見筆)가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에서 가즈미는 가리 오닐과 대결, 연장 1분 59초 만에 하단 돌려차기로 한판을 빼앗아 2연패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가즈미는 일본선수권대회 결승 진출 통산 6차례, 우승 3차례를 기록했다.

극진가라데의 간판스타로 꼽히고는 있지만 가즈미도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기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다.

「경기 전날이나 당일에도 그렇지만 저는 곧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몇 회전에서 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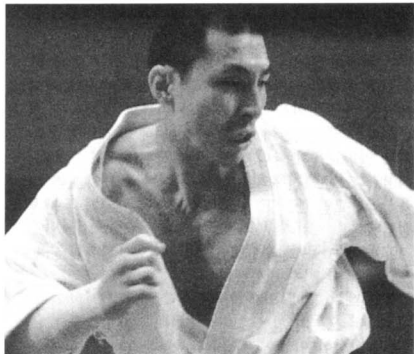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되는 것일까? 라고 지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스스로에게 타이면서 경기에 나갔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가즈미는 자기 자신이 하단차기 등 제한된 특기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반성할 줄도 아는 챔피언이다.

이 선수권대회에서 4강 안에 든 가즈미, 가리 오닐, 호리이께, 다무라 등 4명은 98년 4월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리는 극진가라데 월드컵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 가즈미 하지메는 재일동포 문장규관장이 이끄는 극진가라데의 간판스타다. 그는 지난 11월 일본 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이룩했다.



복싱 BOXING

링에서의 사고 잇달아 복싱계 몸살

복싱금지론이 거세지고 있다



▲ 지난 10월 4일 WBC세계 헤비급 타이틀매치에서 코너에 무너진 앤드류 고로타는 1회 TKO로 졌다.

링에서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영국의 셰필드에서 치러진 영국 주니어 웰터급 타이틀매치 마크 윈터즈와 칼 라이트전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서로 결정타를 날리는 일없이 12회전까지 가서 판정으로 진 라이트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긴급수술로 뇌의 혈종을 제거한 라이트는 그 뒤에도 의식불명인 채로 중태가 계속됐으나 다행히도 10일 뒤에 의식을 되찾았다.

목숨을 건지긴 했으나 라이트는 입원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신세다.

칼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프로복서 생활을 해 왔던 그의 형 폴 라이트는 동생의 사고에 큰 충격을 받고 은퇴해 버렸다.

한편 이보다 앞서 10월4일의 WBC(세계권투평의회) 헤비급 타이틀매치에서도 1회 TKO패 당한 앤드류 고로타가 선수대기실에서 졸도하는 바람에 관계자들이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복싱금지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링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복싱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9년전 싸움으로 타이슨 손해배상 물어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어 링에 오르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는 프로복싱 전합법급 통합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이번에는 9년전의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치료비로 45,000달러(약 4,500만원)를 물어주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 11년전 타이슨(오른쪽)이 판정승을 거둔 그린과의 경기. 그러나 장외에서의 마무리는 11년이나 걸렸다.

게 됐다. 지난 10월 15일 뉴욕의 맨해튼 지방법원은 지난날 타이슨의 경기상대였던 미치 그린 이 타이슨을 걸어 제소한 2500만달러(약 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고 타이슨이 45,000달러의 치료비를 그린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타이슨과 그린은 지난 86년 5월 논타이를 10회전 경기를 치러 타이슨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에당초 그린은 경기전 돈 킹 프로모터로부터 자신의 파이터머니가 타이슨과 같은 액수라고 들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끝난 뒤에 받은 돈이 타이슨이 받은 65만달러의 20분의 1도 안되는 3만달러(약3,000만원)였다.

진 것도 분한데다 약속 받았던 파이터머니마저 형편 없이 깎인 데 불만을 품고 있던 그린은 그로부터 2년 뒤 뉴욕의 할렘가에서 타이슨을 만나자 시비를 걸어 싸움을 펼치고 말았다.

싸움에서도 그린은 타이슨을 당하지 못해 얼굴이 큰 크리트 벽에 문질리는 부상을 입었다.

복싱에도 지고 싸움에도 진 그린은 대결 장소를 법정으로 옮겨 설욕하려고 타이슨이 싸움에서 자기의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거창하게 피해를 부풀려 2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

그러나 배심원들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그린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타이슨이 치료비 45,000달러만을 그린에게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 타이슨의 변호사는 그린에게 「9만달러를 줄 테니 법정까지는 가지 말자」고 제시했으

나 그린은 이를 뿌리치고 제소했다가 결국 그 액수의 반 밖에 챙기지 못하게 된 것.

「하하하! 돈의 액수가 문제 아니다. 결국 나는 타이슨에게 이겨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링에 올라 타이슨과 대결해도 좋아. 목사발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엉뚱한 언동으로 소문나 있는 그린은 기고만장이다.

한편 타이슨은 평결을 듣자 아무 소리 없이 자리를 떠났다. 타이슨의 변호사는 그린의 엉뚱한 언동이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해서 재판관에게 「그린을 30일 동안 보호관찰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여자 세계챔피언 타이틀 방어

일본인으로는 유일한 세계챔피언이 지난 10월 25일 도쿄의 고라쿠엔 홀에서 첫 타이틀방어에 성공했다.

「아니, 그 시점에서 일본의 프로복싱에도 세계챔피언이 있었던가?」라고 의아하게 여길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다.

남자 세계챔피언은 없지만 여자 세계챔피언이 일본에 여럿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IWBFC(국제여자복싱연맹) 스트로급의 슈가 미유키가 바로 화제의 주인공이다.

그날 슈가 미유키(사진 왼쪽)는 동급 9위인 도전자 한국의 김지은과의 12회전 경기에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 5회 40초만에 TKO승을 거두고 타이틀을 지켰다.

이로써 슈가 미유키의 전적은 10전 9승(6KO) 1패가 됐다니 여성답지 않게 주먹의 위력도 대단한 것 같다.



리더십의 근본은 신뢰와 존경을 얻는 것이다.

집중연재 **하**

스포츠와 경영

이기기 위한 리더십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스포츠와 경영 = 이기기 위한 리더십'의 하편을 태권도 지도자를 위해 실습니다. (편집실)

스포츠와 기업경영에 있어 리더의 조건

- 'VIC-T-ORY 모형'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의 리더들에게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음.
- 리더가 평소에는 연습상황에 맞추어 팀을 이끌다가 특정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경기상황으로 체제를 전환하여 업무를 완수해야 함을 의미함.
-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향후 미래형 리더는 이성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

Vision : 명쾌한 비전 제시, 목표의 공유

- 스포츠에서는 승리라는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감독과 선수, 그리고 팀을 일체화시키는데, 그 목표는 결

코 선수 개개인의 희생을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님.

- 야구에서 희생플라이도 엄연히 타점으로 인정되고, 희생번트가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스포츠에서는 팀의 목표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경우, 그 선수가 받는 불이익을 없앴.
- 오히려 팀내의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해 연봉조정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함.

- 리더는 명쾌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비전의 지향점을 팀 구성원의 발전과 일치시켜야 함.

- 시티뱅크가 자랑하는 인재재고(Talent Inventory) 프로그램에는 만명이 넘는 종업원에 대해 '무슨 일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성장해왔고, 직무에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며 심지어 시티뱅크를 떠날 경우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

어 있음.

- 업무가 아닌 경력관리 위주로 종업원을 대하면서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일치시키고 있음.

Intelligence : 분석하는 리더, 학습조직 만들기

■ 차범근 감독은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면서 모든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으로 유명함.

- 특히 상대팀 전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곧바로 팀 전술에 응용되는데, 일본의 막강 미드필더를 무력화한 것이나 UAE의 왼쪽 측면돌파를 저지시킨 것도 상대방에 대한 세밀한 연구에 기인함.

- 직감과 명성보다는 분석에 의존한 용병술을 구사함으로써 더욱 승률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함.

■ 정보에 입각한 전략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리더 스스로가 항상 분석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함.

■ 리더는 학습하는 분위기를 팀 전체에 전파시켜야 하는데 팀 내에 상호 벤치마킹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임.

- 명문구단일수록 자기와 같은 포지션을 지닌 선배의 경기자세나 연습태도를 열심히 관찰하면서 주전선수를 꿈꾸는 후보선수가 많음.

- 96년 사내대학 운영비로 1억6천만달러를 지출하는 인텔은 상무급 이상 전원에게 사내교수 활동을 의무화시키면서 일반직원이 임원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함.

-팀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함.

Consideration : 사려 깊은 리더, 강한 동료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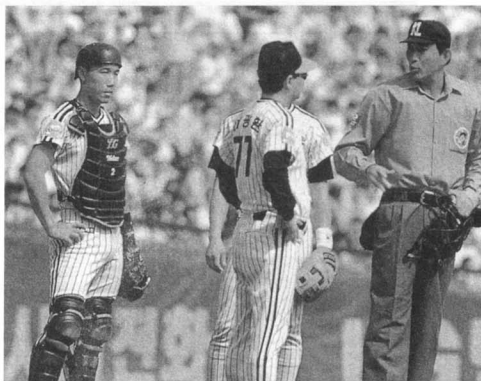
■ 리더가 팀 구성원에 대해 사려 깊게 배려할수록 팀의 성과가 올라감은 자명한 사실임.

- 코트 내에서 뛰는 주전선수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벤치에서 대기하는 후보선수에게 의해서 팀의 분위기가 조성됨.

- 조직연구에 의하면 특A급 20%, A급 20%, B급 40%, C급 20%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간 60%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팀의 승률이 결정된다고 함.

- 후보선수에게도 「너도 언젠가는 주전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방법을 개발해주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임.

■ 리더가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팀 구성원간



▲공정성을 지키는 것도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에 서로 배려하는 강한 동료애가 형성됨.

- 필 잭슨이 시카고 볼스, 빌 월쉬의 샌프란시스코 49ers와 같이 항상 대화의 장을 열어 놓은 팀은 동료 간의 단결력이 높음.

- 개인에 대한 배려가 많고 강한 동료애가 형성된 팀은 그만큼 승률이 높아짐.

■ 리더십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획득하는 것임.

- 현 월드컵 축구 대표선수들은 초등학교시절 때 그들의 우상으로 차범근을 꼽았고, 자기의 우상이 감동하는 팀이기에 더욱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음.

- 리더십을 지닌 리더의 지시는 큰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반면 리더십이 없는 리더의 지시는 자신이 판단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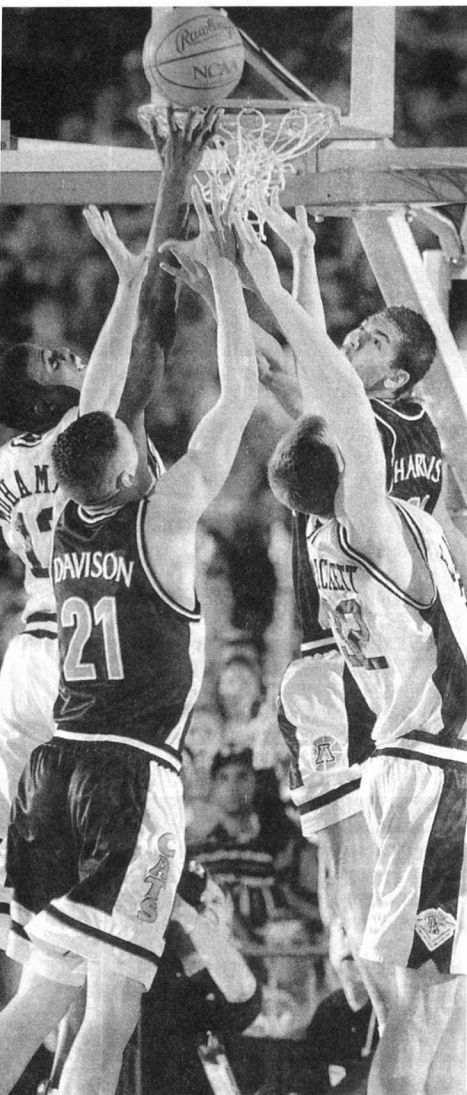
Trust : 신뢰와 존경의 획득

■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천경험이 필요함.

- 이론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리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팀을 통솔해 나갈 수가 없음.

■ 일단 리더십이 형성되면 어떤 업종,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성공신화를 계속 창출해 내는 선순환을 타게 됨.

- 월터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즈너, 코카 콜라의 (故)고 이쥬에타, IBM의 거스너 등은 성공신화 창조를 통해 카리스마를 갖추었는데, 그들은 어떤 회사를 맡더라도 초우량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상호 경쟁속에서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받고 있음.

Outlook : 경험을 바탕으로 둔 상황판단력

■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임.

- 차범근 감독은 대표선수를 선발할 때나 훈련에 임할 때에도 원리원칙과 규율을 중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선수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음.

■ 실전에 있어 리더는 정확한 상황판단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경험적인 요소가 중요함.

- 20세기 초반 남극탐험시 경험이 풍부한 아문젠은 탐험가 중심의 팀을 구성하여 남극을 정복한 반면 경험이 부족한 스콧트는 과학자 중심의 팀을 구성하여 결국 전원이 얼어죽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월드컵 축구팀의 차범근 감독도 대 카자흐스탄전에서 경기장의 잔디사정 등 현장의 상태를 소홀히 여겨 비겼다고 시인한 바 있음.

- 이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는 직접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봄으로써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음.

■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MBWA(management by wondering around), 즉 현장중심의 관리가 핵심 성공요인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의 실천 주체는 리더임.

- 영국항공의 전화장인 폴린마살은 취임 후 공항의 발권 카운터에서 종업원의 친절도, 고객의 불만사항 등을 관찰하며 하루종일 서 있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출근 안하는 사장'이란 오해를 사기도 하였음.

■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히 꿰뚫는 안목을 기꾸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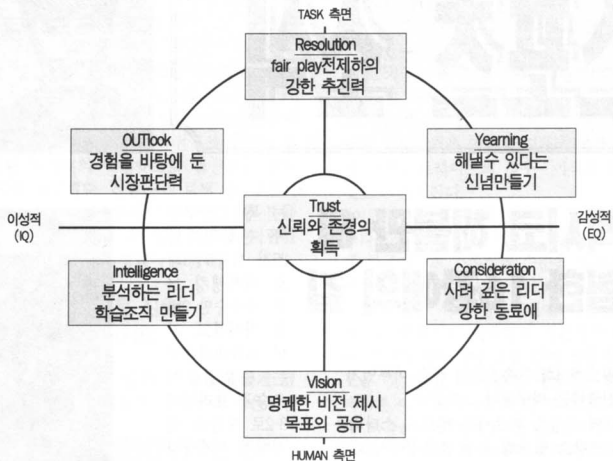
- 이러한 안목은 하루아침에 배양될 수 없으며 매 상황을 접할 때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는지, 「다른 전략을 취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가운데에만 축적될 수 있음.

Resolution : 순간적인 결단과 강한 추진력

■ 상황의 기로에서 순간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일단 결심한 사함에 대해서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함.

- 스포츠에 있어 승부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좌우되며, 이는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코카 콜라의 고이쥬에타 회장은 해외지역 바틀러를



통합할 때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에게 서신을 보내면서까지 이를 설득하였으며 결국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더욱 올려놓았음.

- 이는 도태되는 바틀러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보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주위의 의견에 부화뇌동하여 정해진 물을 어겼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여야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

■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냉엄한 철칙이 지켜지는 곳이 스포츠의 세계지만, 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전제로 한 것임.

- 뛰어난 성적을 냈더라도 정해진 물을 어겼을 경우 승리는 당연히 취소되며, 심지어 선수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함.

- 리더십에 있어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기본임. 이를 우회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리더는 전략목표는 획득할 수 있으나 존경받지 못하여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태하게 됨.

Yearning : 해낼 수 있다는 신념 만들기

■ 해태가 정규리그보다 한국시리즈에서 더욱 승률이 높은 것은 단기전에서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태는 유달리 한국시리즈에 강하다」는 분

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신념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함.

■ 「이길 수 있다」는 신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팀의 승리와 연결됨.

- 미국 프로농구팀에서 시카고 볼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이클 조단이라는 스타플레이어의 능력이 아니라 「조단이 있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자기 팀의 패배의 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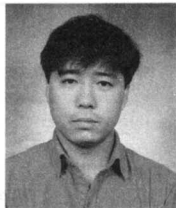
- 선동열이 등판한 경기마다 세이브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선수가 「선은 결코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충만하여 경기에 임하기 때문임.

- 97년초 도요타가 생산량을 20% 늘이고 영업수익을 두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을 때에도 제시한 수치에 우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니까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결국 98년 모델의 차가격을 10% 낮추는데 성공하였음.

■ 팀내에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은 성공의 조기실현」이 중요함.

-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면서 구성원간에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확대되고, 「신념이 성공을 창출하고 성공이 신념을 공고히」하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임.

스포츠 소식



배 병문

경향신문
체육부기자

축 월드컵 구 멕시코 해볼만 해 험한 16강에의 길

한국축구가 월드컵 4회 연속진출의 꿈을 이루었지만 본선 16강 진출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국은 5일 새벽 프랑스 마르세유 벨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98 프랑스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서 네덜란드, 벨기에, 멕시코와 함께 E조에 속하게 됨으로써 16강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남미국가들과 4그룹에 속했던 한국은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8개 시드국 배정에 이어 열린 조추

는 북유럽축구강국 본선전적만 25전 11승6무8패로 세계랭킹 14위, 준우승만 2번을 차지했고, 지난 미국대회에서는 준준결승서 우승국 브라질에 3-2로 패했다. 벨기에의 세계랭킹은 41위로 한국보다 아래지만 전통적인 축구강국으로 분류된다.



▲쥘 리에 컵에 이어 새로 마련된 FIFA월드컵 트로피.



▲ 1990년 제14회 이탈리아대회는 마라도나를 위한 대회였다. (아르헨티나 vs 브라질 전)

첨에서 그동안 내심 기대해왔던 미국 자메이카 카메룬을 피해 이를 강팀과 한 조에 속하게 되어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됐다.

네덜란드는 월드컵 본선에만 7회나 오른 팀으로 「오렌지사단」이라 불릴 정도로 대회 우승후보로 거론되

지난 미국대회에서는 16강에 진출했다 독일에 3-2로 패배했다. 따라서 한국이 제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멕시코, 하지만 멕시코도 그리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다. 본선에만 11회 오른 데다 랭킹 11위, 국가대표 전적 6전 1승 5패, 월드컵에서는 한번도 맞붙은 적이 없다.

차범근 감독은 「E조에 속한 팀들이 한팀도 만만하게 다룰 팀이 없어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면서도 「멕시코와 벨기에를 제물로 반드시 16강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자메이카와 한조를 이뤄 한국보다는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한층 높아졌다.

FA컵, 전남 드래곤즈가 우승

국내축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제2회 FA컵축구대회에서 전남드래곤즈가 우승을 차지해 울 정규리그와 K리그 준우승의 한을 풀었다. 전남은 11월2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천마일화의 결승전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된 노상래의 헤딩슛으로 결승점을 뽑아 일화를 1-0으로 제압했다. 전남은 이로써 올 무관의 한과 지난 95년 챔피언결승전에서 일화에 당한 빚을 갚으며 내년 시즌을 기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FA컵 MVP에는 김정혁이 뽑혔다.

이종범,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 선동열 있는 주니치 가기로

프로야구 해태의 이종범이 일본야구로 진출하게 됐다. 이종범의 일본진출은 선동열, 조성민에 이은 3번



▲ 이종범(왼쪽)이 마의웅 사장의 동의를 얻어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한다.

째, 해태 마의웅 사장은 3일 「그동안 국내프로야구 활성화와 구단 사정등을 고려해 이종범의 일본야구 진출에 상당한 고민을 해왔다」며 그러나 「팬들이 일본에서 활약하는 이종범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본인도 이를 강력히 희망해 일본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태구단이 「이종범이 편하게 야구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선동열이 활약하고 있는 주니치 드래곤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니치측도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종범의 신분 및 계약가능성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이종범의 주니치 입단에 적극적이다. 이종범의 입단조건은 입대의 경우 「2년간 3억엔, 연봉 1억엔 이상」, 트레이드의 경우 「이적료 5억엔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종범 자신은 요미우리에서 뛰고 싶지만 어디든지 좋으면서 「일본야구 영웅 이치로를 능가하는 선수가 돼 한국야구의 자존심과 수준을 일본무대에 펼쳐보이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야구수준 면에서 현수 위인 일본무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종범의 기본기가 워낙 완벽해 얼마 지나지 않아 선동열과 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범은 93년 프로야구에 데뷔한 이후 첫째 2할8푼을 제외하고는 내리 4년 3할대 타율을 유지해왔고 총 551경기에 출장에 713안타, 106홈런, 310도루를 기록한 호타준족의 야구스타. 만약 이종범이 주니치로 가게된다면 경기마관 마무리투수로 나선 선동열이 상대타자를 틀어막고 이종범이 결승타를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후의 노병, 이만수 은퇴

프로야구 원년멤버 중 유일하게 현역으로 활약하던 삼성 이만수(39)가 유니폼을 벗었다.

프로야구 인생 16년을 마감한 것이다. 이만수는 최근 IMF한파와 외국용병 수입으로 각 구단이 몸통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11월 25일 마감된 보류선수 명단에 제외됨으로써 강제퇴직 당했다. 이만수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년 시즌까지는 뛸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스스로 명예롭게 일어나가지 못하고 「떨려나가」 그를 아꼈던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만수는 프로야구 16년동안 1천4백44게임에 출장, 평균타율 2할8푼6리, 2백52홈런을 쳐낸 한국 프로야구의 산 증인이자 간판. 83년 MVP에 84년 타격왕을 지냈고, 83-85년 3년내리 홈런왕에 오르기도 했다. 이만수는 이제 야구 그라운드가 아닌 덕아웃에서 마지막 야구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그동안 머리속을 맴돌았던 야구지도자의 길에 나서기로 작정하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야구유학에 오를 계획, 홈런을 치고 두손을 높이쳐들고 좋아했던 「헬크」 이만수, 얼마 후면 그라운드 아닌 덕아웃에서 냉정한 승부사로 변한 「독심의 지도자」 이만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두한의

스코어 카드

SCORE CARD

“오오! 태권도!”

호텔 보이는 좀 수다떠다 싶을 정도로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외쳤다.

나의 방에 마련되어 있는 냉장고 속의 음료수를 점검하러 왔던 보이는 자기에게 줄 만한 기념품이 없느냐고 웃는 얼굴로 간청했다.

마침 서울을 떠나기 전 성재준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이 현지에 가서 쓰라고 건네주었던 협회 배지가 있길래 그것을 하나 주었더니 보이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순민양 처장의 이 말에 나는 귀가 번쩍했다.

“에어로빅 태권도요? 그렇다면 중국의 태권권처럼 품새로 에어로빅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음악도 곁들이고 있습니까?”라는 나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노인네들이 하고 있는 태권권처럼 태권도 품새에 음악을 곁들여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에어로빅 운동을 마련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태권도의 세계화는 중국인 한국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보다 빠른 속

태권도 발전, 지금이 중요한 때 싱가포르서는 에어로빅 태권도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섬의 베이뷰비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홍콩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던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TAFISA(국제사회체육연맹)총회에 KOC(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주호 박사 등과 함께 회의 대표로 참석했다.

그 모임에서도 태권도의 세계화는 뚜렷이 실감할 수 있었다. 호텔 보이가 나를 만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일으켜 세우며 ‘태권도!’라고 외치는 것은 선물을 주었으니 그렇다 치고 각국의 회의 대표들이 모두 태권도를 알고 있었다.

특히 싱가포르체육회의 순민양(孫敏炎) 사회체육처장으로부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

“우리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대상으로 전민(全民)체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에어로빅 태권도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서울에도 다녀왔어요.”

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에어로빅 태권도에는 한국 음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은 듣기에도 매우 좋아요.” 순민양 처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면 태권도에 얽혀 한국 음악까지 싱가포르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체육 문화와 함께 음악 문화까지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온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태권도 한마당 97’이 펼쳐졌다.

이번 ‘한마당’의 대회를 통해 대한태권도협회 이끌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태권도를 보다 많이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 체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6천여 도장의 수련생은 어린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나 TV방영

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는 그 동안 경기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품세의 창작,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도장 경영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물론 일선 지도자들에게서도 여기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필곤 회장의 말대로 태권도중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도장에는 왜 어린이들만 몰려들고 성인들은 오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경기장에는 관중이 별로 없고 TV가 태권도 중계에 열을 올리리 않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태권도가 가져다주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홍보의 부족, 그리고 태권도를 재미있게 만드는 연구 노력의 부족이 그 원인이다.

체육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이상적인 운동은 유연성, 지구력, 근력의 세 가지를 고루 키울 수 있는 종목이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연성은 몸을 쭉 펴는 스트레칭, 지구력은 일정 시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에어로빅 운동, 근력은 몸에 부하나 저항을 주는 중량 운동 등으로 키울 수 있다.

태권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키울 수 있는 뛰어난 종목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주먹을 내치르고 발로 차는 동작은 바로 스트레칭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분 가량 계속하면서 땀을 흘리면 지구력도 강화된다.

아령이나 바벨을 쓰지 않더라도 팔굽혀펴기나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등을 곁들이면 근력도 강화된다.

운동 부족으로 심신의 스트레스가 쌓여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 태권도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도 그 효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태권도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보다 재미있는 태권도 창출에 힘써야 한다.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직장인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노인들의 노화를 막아 젊은 시절의 체력을 되찾아 주며 여성에게는 날씬한 몸매와 의욕에 넘친 하루를 약속해 주는데 태권도가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홍보 활동이 펼쳐져야 한다.

외국의 도장에서는 각 연령층에 걸쳐 고르게 수련생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견주어,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란 어린이들만이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태권도경기를 보다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태권도 전문가뿐 아니라 방송국의 스포츠PD, 더 나아가 가서는 연예 PD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현재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 뒤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폭 넓은 지지를 얻어야만 태권도는 올림픽정식종목으로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우슈 등을 뿌리치고 가장 먼저 올림픽정식종목 대열에 끼어드는데 성공은 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김운용 WTF(세계태권도연맹)총재의 말대로 우리 모두가 예지를 모아 태권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폐인을 너 무 일찍 떠뜨려서는 안된다.”라는 교훈은 비단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 같다.

태권도소식

지난 11월 27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97태권도한마당에는 모두 2만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 열띤 경연을 벌였다.

'97태권도한마당의 수상자들과 성적은 다음과 같다.

부분별 최강자

손날격파왕	용인대태권도시범단	문영봉	대리석 15장 격파
발격파왕	체육선교신학교	김재호	송판 7장 격파
종합격파왕	북아현체육관	서의성	
창작품새왕	경북무진회	이해준(외 3명)	

부별 우수상 최강자

높이
뛰어차기

순위	중등부		청장년부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1위	문래체육관	유한열	신흥체육관	정춘기
2위	월드체육관	송재원	능곡상록체육관	정재욱
3위	명상체육관	오정택	성산체육관	이근천
4위	유신체육관	조원민		
5위	선의체육관	김대겸		

멀리
뛰어차기

순위	중등부		청장년부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1위	대성중학교	정병두	경남대학교	공성민
2위	시흥명성체육관	박동철	세계태권도선교회	김성문
3위	금산비룡도장	이찬영	문무체육관	류동호
4위	상계체육관	이태곤	경희대학교	정인범
5위	상계체육관	송봉상	금산비룡도장	김재승

호신술

청장년 여성부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용인대학교	정은자(외 2명)	
2위	경희대학교	장인권(외 4명)	
3위	명화체육관	배선옥(외 2명)	
4위	태종체육관	강중원(외 3명)	
5위	계명대학교	정현진(외 2명)	

주먹격파

청장년부				
순위	소 속	성 명	비 고	
1위	부천상기울림픽체육관	한승만	대리석 8장	
2위	동명체육관	박준호	대리석 8장	
3위	고양비호체육관	최종원	대리석 8장	
4위	세계태권도선교회	김정모	대리석 7장	
5위	서원원전체육관	이태화	대리석 5장	

손날격파

청장년부				
순위	소 속	성 명	비 고	
1위	용체육관	문영봉	대리석 8장	
2위	경북태권도협회	김일환	대리석 6장	

발격파

청장년부				
순위	소 속	성 명	비 고	
1위	체육선교신학교	김재호	송판 7장	
2위	순천서면체육관	임병운	송판 3장	
3위	한국태권도고수회	강신철	송판 3장	
4위	한미태권도아카데미	최창익	송판 1장	

여맹연맹

일반품새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인도	김슬기
2위	프랑스	기프리스
3위	러시아	민이반
4위	말레이시아	다잉 댄이엘
5위	과테말라	김원재

태권체조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인도	상기타
2위	싱가포르	제니퍼윙

창작품새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인도	조셉
2위	인도	플로라
3위	호주	로버트 이아코니
4위	싱가포르	권분혁

멀리뛰기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인도	찬드라
2위	인도	살만
3위	인도	수다만
4위	싱가포르	권분혁
5위	브라질	퍼난도 다실바

종합격파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인도	쿠마
2위	대만	양순화
3위	싱가포르	웅균유 재이슨
4위	싱가포르	팽치시앙
5위	싱가포르	링경레잉

호신술		
순위	소 속	성 명
1위	러시아	임로만
2위	싱가포르	링경레잉

높이뛰어차기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캐나다	닉웨이트
2위	우즈베키스탄	알렉산드니

주먹격파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우즈베키스탄	알렉산더 김
2위	사할린	안수학
3위	호주	로버트 이아커니

손날격파		
순위	소 속	성 명
1위	싱가포르	보팽림 스티븐

일반품새

초등부		
소 속	성 명	
방학체육관	김중현(외 6명)	
상계체육관	김재환(외 9명)	
한국체육관	안수민(외 9명)	
지성경희도장	손정훈(외 4명)	
수원남창체육관	강유진(외 4명)	

청장년부		
소 속	성 명	
용인대학교	김성진(외 17명)	
지성경희도장	김경찬(외 2명)	
계명대학교	김상용(외 5명)	
월드체육관	이정호(외 2명)	
명화체육관	정태환(외 3명)	

중등부		
소 속	성 명	
방학체육관	심주섭(외 4명)	
세계태권도선교회	김선교(외 5명)	
온양송도체육관	강만규(외 3명)	
한마당태권도장	이상우(외 4명)	
명화체육관	임혁(외 6명)	

여성부		
소 속	성 명	
청룡체육관	유선(외 2명)	
세계태권도선교회	이하람(외 3명)	
수원인천체육관	오재순(외 11명)	
경남대학교	임인아(외 2명)	
세계태권도선교회	김은정(외 7명)	



강원도협회

제12회 원주시교육장배 및 협회장배태권도 대회

지난 11월 1일 - 2일(2일간) 제12회 교육장배 및 협회장배태권도 대회가 초·중·고 43개 학교가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백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김수기(원주시태권도협회장)의 대회사, 박수영(교육감)의 격려사, 김기열(원주시장)의 축사, 이병무(원주시변영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응규(강원도협회부회장), 최홍배(강원도협회전무이사)등 각계 인사 임원, 선수 1,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기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앞으로 원주시태권도인구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며 기존의 각종 대회를 더욱 짜임새 있게 개최하여 선수들의 기량 시험장이 된다는 물론 태권도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청원학교 소속의 유체근선수가 장애의 몸으로 겨루기부분에 참가하여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으며 김수기 대회장과 박수영 교육감이 유선수를 격려했다.

또한 원주시태권도 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협회측의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 수상자명단

- ▲원주시교육감 감사패 : 김수기 원주시협회장
- ▲원주시교육감 감사장 : 홍광표 경기부장
- ▲강원도협회장 감사패 : 한창희 원주시협회이사
김정래 원주시협회이사
- ▲강원도협회장 공로패 : 박진배 운영부장
- ▲원주시협회장 감사패 : 송영호 명륜초등학교장
윤희정 만종초등학교장
- ▲원주시협회장 공로패 : 권오복 부회장
강유원 심판부장
맹성호 성훈체육관장
이상일 효성체육관장

경찰학교, 태권도 정식과목 “군경사관학교서도 채택토록 노력”

상해울로태권도연맹(회장 김상인)과 재브라질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이계준)이 공동으로 브라질경찰태권도 보급을 추진해 오던 바, DADG 총서장, Dr. CHOI MIYAKE를 통해 Dr. TABAAR 경찰학교장의 재가를 받고 경찰학교에 태권도를 정식과목으로 채택시켰다.

이계준 회장은 “브라질에 태권도가 보급된 지 26년 만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단 군

경 ROTA에 주 2회씩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데 태권도협회는 계속해서 군경찰사관학교에 태권도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밝히고 “경찰학교와 ROTA 시범은 본인을 포함, 박제강, 이신화, 신형석, 김제진 사범이 순번제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남미판, 97년 11월 15일자〉



○ 단체우승

- ▲저학년부 : 종합우승(치악초등학교)
준우승(문막초등학교)
3위(장양초등학교)
- ▲고학년부 : 종합우승(교동초등학교)
준우승(치악초등학교)
3위(소초초등학교)

○ 개인별 입상자 명단

▲저학년부

- 편급-손창민(장양)
밴텀급-정혁진(문막)
라이트급-안효근(우산)
미들급-손형렬(태장)

▲고학년부

- 편급-김영두(소초)
밴텀급-김재현(태장)

- 플라이급-정혁구(문막)
페더급-전창호(치악)
웰터급-김두용(소초)
헤비급-정구락(비두)

- 플라이급-김형래(치악)
페더급-김민우(교동)

- 라이트급-이진희(소초)
웰터급-김용석(교동)
미들급-전형기(교동)
헤비급-김지웅(교동)

▲중등부

- 편급-지유민(평원중) 플라이급-이대성(평원중)
밴텀급-김민철(대성중) 페더급-김보관(평원중)
라이트급-김형섭(학성중) L.웰터급-송석구(평원중)
웰터급-전태용(평원중) L.미들급-주진우(평원중)
미들급-이성구(평원중) L.헤비급-강호웅(평원중)
헤비급-김교현(문막중)

▲고등부

- 편급-이규성(원주공고) 플라이급-지경근(원주공고)
밴텀급-함관식(원주공고) 페더급-권영준(원주공고)
라이트급-임정환(삼육고) 웰터급-박지황(원주공고)
미들급-김상기(원주공고) 헤비급-홍성현(삼육고)

제12회 재독 대한태권도협회장배 국제태권도대회 대성황

지난 10월 18일 제12회 재독 대한태권도협회장배 국제태권도대회가 오버하우젠의 차웅길 사범의 주관으로 Sporthalle Willy-Jurissen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겨루기 참가 선수 308명, 품새 참가 선수 65명 등 총 373명과 관중 1,000여명의 열기는 우리의 국기 태권도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한국인들의 가슴을 벅차 오르게 했다.



예선전이 끝난 오후 개막식에서 재독 대한태권도협회 김일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세계속에 태권도의 뿌리를 더욱더 튼튼히 내리는데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 힘써온 사범들의 시상식에 한국에서 직접 온 대한태권도협회 김순배부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 이필곤회장의 상장을 김덕배, 백진건, 강석선, 강황용, 김홍영, 임정규사범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세계태권도연맹 김운홍총재의 상장은 대한태권도협회 김덕배수석부회장이 최영복, 서정수사범에게 전달했다. 이날 종합성적은 다음과 같다.

- 1등 Bonn Sportschule Choi(관장 최영복)
- 2등 Taekwon-Do Center Velbert(관장 나글로)
- 3등 Köln 무사도(관장 김홍영)
- 4등 Sportakademie Cha(관장 차웅길)
- 5등 Sportakademie Kim Gelsenkirchen(관장 김영희)



제8회 강릉시교육감기타기 태권도대회

지난 11월 14일~15일(2일간) 제8회 강릉시교육감기타기 태권도대회가 강릉시 강릉중학교에서 각급 기관장, 학교장, 임원.선수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강릉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강릉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최영규 교육감의 대회사, 황학수 국회의원의 격려사, 심기섭 강릉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강릉시협회발전에 공이 큰 김금술 강릉시협회 이사(감사패), 송세권 동부체육관장(공로패), 심남섭 강일체육관장(공로패)에게 이상철 강릉시협회장이 각각 수여했다.

○ 종합성적

▲저학년부

종합우승:주문진초등, 준우승:교동초등, 3위:옥계초등

▲고학년부

종합우승:교동초등, 준우승:동명초등, 3위:명주초등

▲중등부

종합우승:강릉중, 준우승:경동중, 3위:옥계중

(원제용 편집위원)

경남 도협회

제13회 경상남도교육감기 시.군.교육청대항 초.중등부 태권도대회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총300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대회는 예년보다 1/3가량 참가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본대회는 지난 10여년간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여 경남태권도 경기력 향상의 기반이 되어왔다.

(서채천 편집위원)

캐나다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선수16명 · 임원7명 한국찾아와

지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력강화를 위한 방한 전지훈련을 가졌다.

대표팀의 단장은 윤오장사범(50)으로 지난 68년도에 캐나다에 들어가 30년째 태권도 보급을 해오고 있다.

이번 방한에는 캐나다협회의 이태은회장(49)이 동행했다.

임원 7명과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도착후 첫 일주일간 설악산에서 시차적응훈련과 더불어 체력강화훈련을 하였고 경기를 앞두고 몰려드는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한 야간 정신력강화훈련등을 가졌다.

나머지 일주일만은 한국체육대학과 경희대학등 태권도명문팀을 순회하면서 합동훈련을 통한 기술보강과 더불어 친선경기를 가졌다.

대표팀은 전지훈련을 마친 16일에, 17일부터 세계대회가 열리는 홍콩으로 떠났다.



▲한국체대에서 합동훈련을 마친후 함께 한 임원과 선수들, 맨 뒷줄 왼쪽부터 4번째가 윤오장 단장, 5번째가 이태은 협회회장.

주니어

체급	순위	성명	소속	체급	순위	성명	소속
핀급	1 2 3	김와룡 성상용 박수만 조현수	거제 창원동 하마산	웰터급	1 2 3	손병훈 경훈 중현 이만익	거제 마산 창원동
플라이급	1 2 3	박병수 김태진 홍민기 박기철	양산 통영 창남 해	L미들급	1 2 3	이영재 천필 허영 신영기	진해 마산 거창 원
밴텀급	1 2 3	김승우 정재우 김영호 김조	창원 고성 영천	미들급	1 2 3	정영식 김정기 양기성 이명성	마산 창원 해
페더급	1 2 3	김대호 조훈국 마백성 김정성	거창 마산 사하 동	L헤비급	1 2 3	박정민 유승화 임민자 박승동	창원 해 마산 해
라이트급	1 2 3	하영주 이재성 이호철 정철영	창원 마산 안남 해	헤비급	1 2 3	이진우 권민우 손서진	마산 해 진고
L웰터급	1 2 3	김진욱 진태양 김경민 노	거창 마산 남해 창원	종합순위	1 2 3	창원시 마산시 거창군	

세니어

체급	순위	성명	소속	체급	순위	성명	소속
핀급	1 2 3	이성준 안명준 강모수 정은	마산 함양 사하 거제	웰터급	1 2 3	김대식 강욱원 최원준 현준	거창 해 고성 합천
플라이급	1 2 3	변재익 이진민 최종렬 김득	마산 창원 합안 거제	L미들급	1 2 3	이종영 박광욱 조래주 이창	김해 마산 창원
밴텀급	1 2 3	이충기 임지무 이상수 김지	거제 해 마산 통영	미들급	1 2 3	이태곤 희식 김원근 김	마산 해 거제
페더급	1 2 3	김병완 정훈기 조기선 손기화	거제 창원 창녕 마산	L헤비급	1 2 3	이상현 진정환 민광민 이	창원 해 동 마산
라이트급	1 2 3	이정수 정부현 이협석 허인석	마산 창원 창녕 창원	헤비급	1 2 3	정승권 진근 김진 신	마산 창원 영천
L웰터급	1 2 3	박호호 김준호 박현호 오세	창원 거제 합천 마산	종합순위	1 2 3	마산시 창원시 거제시	

第十三屆世界跆拳道錦標賽
第六屆女子

THE 13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
THE 6TH WOMEN'S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合辦機構
Jointly
Organized by



香港跆拳道協會
Hk Taekwondo Association
Hk Taekwondo Association
Hk Taekwondo Association



主要贊助商
Main Sponsor



英皇集團
EMPEROR GROUP

推廣
Promoted by



Official Equipment



Official Bank



Honorary Auditor



Official Hotel



Official Equipment



Official Bank



Honorary Auditor



Official Hotel



격전과 감동의 드라마

'97 홍콩 세계선수권대회 개회식은 화려하게 치러졌다.



**제13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 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지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콜리시엄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선수권대회 겸 제6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는 91개국이 참가 열전을 펼쳤다.

한국은 남자부에서 금4, 동2개를 따냈고, 여자부는 8개 체급 가운데 놀랍게도 7개의 금메달과 은 1개를 차지하며 동반 우승을 이룩했다.

홍콩에서 치러진 격전과 감동의 드라마를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홍콩=임충희)

남자 헤비급 김제경 선수의 날렵한 뒷차기



세계대회 3연패의 영광을 달성한 삼총사
왼쪽부터 남자 헤비급의 김제경, 남자 플라이급 진승태, 여자 헤비급 정명숙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97 홍콩)



시종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호평을 받은 여자 핀급의 양소희도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경험 많고 노련한 백전노장인 여자 밴텀급의 황옥수도 세계 왕좌에 올랐다.



국제대회 경험 부족이랄 우려를 떨치고 다양한 기술로 우승한 남자 페더급의 김인동



국기대표 신인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여자 미들급 우연정의 경기모습.



국가대표 신인으로서 우승한 여자 미들급의 강해은.



이번 대회에서도 화려하고 파워팅 넘치는 기량을 보여준 여자 웰터급의 세계챔피언 조항미.



아빠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 드리겠다는 다짐을 실현한 유일한 고교생 대표선수인 여자 페더급의 장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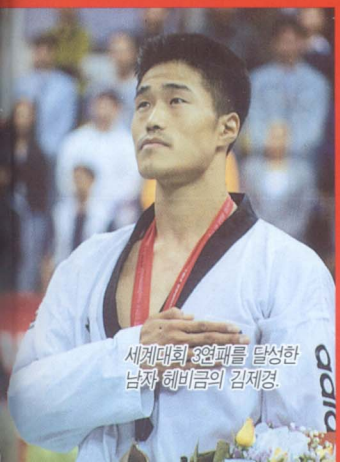
세계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여자 헤비급의 정명숙.



자랑스런 금메달리스트들



이번 대회 제퍼로 세계대회 2연패를 달성한
남자 마들룸 이등원삼수의 경기 모습.



세계대회 3연패를 달성한
남자 헤비급의 김제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남자 플라이급의 전승태.



대회장의

안 과 밖



"이얌"

허공을 날며 판자를 깨는 어린 태권도맨 개회식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시범합의 묘기는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홍콩 임시 시장국의 양정방 주석(왼쪽)이 개회식에 초청된 무술영웅스타 성룡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시상식 직후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한기복 단장(가운데)과 정점우 도처(오른쪽) 그리고 김석원 트레이너.



어린이들의 애인 공세에 둘러싸인 남자 헤비급 세계챔피언 김제강.



경기를 참관 중인 로열박스의 VP들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가 김운용 세계연맹총재, 세번째가 조 웬슨 세계연맹부총재, 네번째가 엄운규 국가원부위원장



◀ “엄마! 나 정말로 세계챔피언이 됐어.”

우승 직후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여자
핀급의 세계챔피언 양소희는 울어 버렸다.

▶ “그대로 밀고나가! 네가 이기고 있어.”

여자 밴텀급의 황은숙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박연수코치의 표정은 진지하다.



13TH GENERAL ASSEMBLY

18, 1997 Hotel Miramar, Hong Kong, China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개회식 다음날인 18일, 홍콩 미라마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연맹총회에서
김운용 세계연맹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97 홍콩)



▲종합우승을 차지한 자랑스런 우리대표팀.
뒷줄 왼쪽부터 6번째가 최영렬 대표팀감독, 7번째가 한기복단장,
8번째가 경남 김선규전무이사. 선수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



상대의 오른발 앞돌려차기 공격에 대해 HOTEL
오른발 받아치기로 반격을 시도하는
여자 편편의 양주희(오른쪽).



여자 라이트급의 강해은(왼쪽)이
대만 선수에게 왼발 뒷차기를 퍼붓고 있다.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대표팀을 협회임원진과 원로들이 공항에 나가 환영했다.
뒷줄 왼쪽부터 5번째가 노우중협회 전무이사, 6번째가 김순배 협회 부회장, 7번째가 홍중수원로,
8번째가 이흥주 협회 상임부 회장, 9번째가 황춘성 협회 부회장.

PHOTO
SKETCH

'97

태권도 한마당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97 태권도 한마당은 개인 참가자와 237개의 단체팀을 포함, 2,159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국내의 태권도인들의 잔치인 한마당은 지난 92년에 창설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4일간에 걸쳐 펼쳐진 선수 아마추어 태권도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확보로 엮는다.

〈수상자명단 92페이지에〉

◀격파경연 종합격파부문 중등부에 출전한 영화체육관의 옥진환이 제자리 360도 공중회전차기를 보이고 있다.

'97 태권도 한마당

격파경연 발격파부는 청장년부터 여섯까지 진출하여 승판 7장을 격파, 발격파왕에 오른 김재호씨(독산고신학교)는 합파 스피드가 높이 평가되었다.



격 파



격파경연의 종합격파부문 중등부에 참가한 세계태권도 선교회 소속의 김선교가 합파에 쏜 사과를 뒤쫓아 격파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다.



격파경연 종합격파부문 청장년부터 참가한 용인대 세법단의 정해성이 두눈을 가린채 합파에 쏜 사과를 380도 뒤돌아 앞돌려차기로 격파하는 묘기를 보이고 있다.

'97 태권도 한마당



▲ 82년부터 94년까지 연속하여 발격파왕을 지낸바 있는 한국태권도고수회의 강신철회장이 발격파부문에서 열연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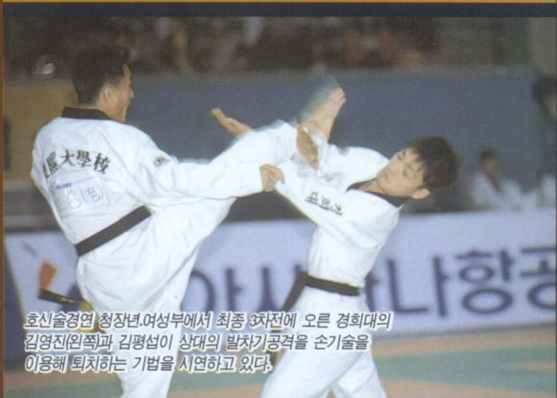
▼(나) 격파경연 종합격파부문 여성부에 참가한 세계태권도선교회의 신미영이 360도 회전 앞돌려차기로 승판을 깨고 있다.

▼(다) 격파경연 종합격파부문 중등부에 출전한 하룡체육관의 신현수가 3차전에서 공중에 뜬채로 4개의 승판을 앞차기로 격파하는 묘기를 보이며 고득점을 획득했다.



호신술경연 청장년·여성부에 참가한 태종체육관의 유상훈이 유력적인 기술로 3명의 상대방을 꺾고 있다. 유상훈은 최종 5전까지 진출해 우승상을 수상했다.

호신술



호신술경연 청장년·여성부에서 최종 3차전에 오른 경희대의 김영진(왼쪽)과 김평성이 상대의 발차기공격을 손기술을 이용해 퇴치하는 기법을 시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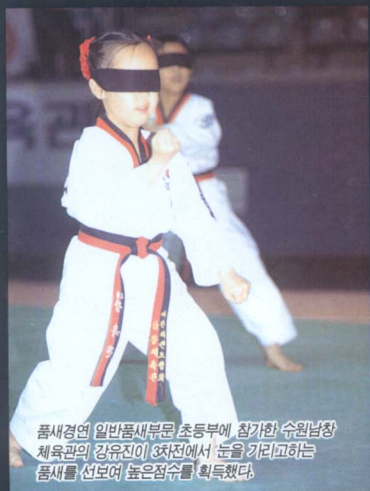
호신술경연 청장년·여성부에서 최종 5전까지 진출해 용인대의 정은자(가운데)가 남성 두명을 무르기 기술을 이용해 격퇴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97 태권도 한마당



품

▲ 품새경연 태권부문 청장년, 여성부에 참가한 체육선교신학교의 이옥규와 전주연 등이 울동을 가미한 태권체조를 선보였다.



품새경연 일반품새부문 초등부에 참가한 수원남창 체육관의 강유진이 3차전에서 눈을 가리고하는 품새를 선보여 높은점수를 획득했다.



품새경연 일반품새부문 외국인부에 참가한 미국어린이가 힘찬동작으로 품새를 해보이고 있다.

'97 태권도 한마당



새

▲품새경연 창작품새부문 청장년. 여성부에서 3차전에 진출하여 최고득점을 획득한 경북무진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품새부문 태권체조부문 청장년. 여성부에 참가한 계명대 여학생들이 경쾌한 율동을 가미한 태권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품새경연 일반품새부문 외국인부에 참가한 세계선교회 인도자부 회원들이 상징적 의미가 담긴 품새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품새경연 일반품새부문 청장년부에 참가한 월드체육관의 소인환이 산뜻한 율차기를 뽑내고 있다.



▲성인태권도 동호모임인 '무사회'의 회원들. 이들 중 2명이 입상했다.



◀종합격파경연에 참가한 외국인이 2m30cm 높이의 송판을 두발당상차기로 격파하는 모습.

▼벽돌 3장을 손날로 격파하고 있다. 무사회 회원은 정말 무사?





▲세계체육선교회 외국인회원들이 선보이는 품새부문의 경연

▶얼굴을 노리는 뒷차기가 매우 날카롭고 유연성이 돋보인다. (품새경연)

▼세계체육선교회 소속의 외국인 회원들이 품새 부문에서 열연을 하는 모습.
진지한 어린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한국태권도 교수회 교본 출판 기념회

태권도교본출판 기념식



앞줄 가운데 안경 쓴 이가 홍중수 원로. 그 왼쪽이 강신철 태권도교수회 회장. 그 오른쪽이 강원식 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지난 11월 15일 올림픽파크호텔에서 한국태권도 교수회 주최의 태권도교본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지도자용으로 나온 본서의 제목은 「태권도 교본 : 한국태권도 교수회편 (상아출판사)」로 세세한 설명보다는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각종 동작사진과 역사, 전통, 문화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론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회원과 하계 200여명을 비롯, 홍중수 원로, 강원식 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효중 한양대학생처장, 박영달 전 주월남태권도교관단장, 김순철 불광건민조기화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제약을 지르고 있는 내빈들

경원대 태권도학과

태권도사(史) 교육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회

경원대학교(총장 김의원) 태권도학과는 지난 12월 11일 경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태권도사 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태권도사(史)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원대 이규석 교수가 「동양무술에 대한 고찰」, 이봉교수가 「태권도사의 교육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태권도 전문가와 체육관계자들로 구성된 토론자들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통해 합리적인 이론 제시로 태권도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홍중수 원로 태권도인.

경원대 태권도학과장인 이규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온 정락희 한체대교수, 이용복 태권협회 부회장, 김홍국 문화일보기자, 강성철 용인대교수